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9호 【루계 제25883호】 주체107(2018)년 1월 9일 (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전인민적인 총공세를 벌려 공화국의 전반적국력을 새로운 발전단계에 올려세우자

강원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량강도, 라선시군중대회 진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강원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량강도, 라선시군중대회가 각각 진행되였다.

대회장들은 당의 령도따라 전인민적인 총공세를 벌려 최후발악하는 적대세력들의 도전을 짓부시고 공화국의 전반적국력을 새로운 발전단계에 올려세울 혁명저열의에 넘쳐있는 군중들로 차넘치고 있었다.

지방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공장, 기업소, 농장, 대학 등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대회들에 참가하였다.

《김정은장군찬가》주악으로 대회들은 시작되였다.

강원도에서

강원도군중대회에서는 조선로동당 강원도위원회 위원장 박정남동지의 보고에 이어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한상준동지, 원산군민발전소 지배인 추평길동지, 원산시협동농장경영위원회 위원장 현병국동지, 조군실원산공업대학 학장 김찬일동지가 결의토론을 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는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에 대한 확신과 락관을 더해주고 위풍한 진로를 밝혀준 강령적지침이며 천만군민을 만리마대진군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전투적기치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공화국핵무력건설에서 이룩한 력사적승리를 새로운 발전의 도약대로 삼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혁명적인 총공세를 벌려나가야 합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안겨주신 강원도정신창조자의 영예를 심장에 새기고 오늘의 장엄한 총공격전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여러 군민발전소건설을 본때있게 다그쳐 강원땅에 보다 강력한 수력발전기지를 조성하는것과 함께 원산청년발전소, 원산군민발전소를 비롯한 발전소들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송성호뜨락또르공장에서 자력갱생의 투쟁본때로 새형의 뜨락또르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며 원산구두공장, 송도원종합식료공장 등 경공업기지들에서 국내원료와 자재로 다양하고 질좋은 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든 농사일을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여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무조건 점령하며 과학적인 어로전으로 물고기잡이계획을 완수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당의 원대한 구상을 받들고 군민이 힘을 합쳐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을 최단기간내에 완공하며 산림조성사업을 근기있게 밀고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과학교육시설들과 환경을 더욱 일신시키고 새로운 교수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교육을 명실공히 과학연구와 실천활동이 밀접히 결합된 쌀모있는 교육으로 전환시켜나가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함경북도에서

함경북도군중대회에서는 조선로동당 함경북도위원회 위원장 리히용동지의 보고에 이어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오경석동지, 서두수발전소 지배인 김철호동지, 청진시협동농장경영위원회 위원장 김영호동지, 청진광산금속대학 학부장 박학경동지가 결의토론을 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를 무한한 격정속에 받아안은 도안의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전후 천리마대고조로 난국을 뚫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킨것처럼 전인민적인 총공세를 벌려 경제전선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제낄 불같은 열의에 넘쳐있다고 말하였다.

어머니당의 뜨거운 사랑속에 지난해 청진초등학원과 중등학원, 도전염로병보양소가 훌륭히 일떠섰으며 군민의 단합된 힘으로 수십km의 두만강제방 및 호안공사 등을 성과적으로 끝낸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 100돐을 맞으며 회령시가 사회주의선경도시로 일신되였으며 수십개의 중요대상건설이 립체적으로 벌어지고 전형단위들이 태어났다고 말하였다.

도안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가 제시한 혁명적대응전략의 요구대로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개선향상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다그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서두수발전소를 비롯한 전력공업부문에서 전력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며 금속공업부문에서 주체적인 제철, 제강기술을 더욱 완성하는것과 함께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산소열법용광로운영을 정상화하여 인민경제의 철강재수요를 충족시켜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경공업공장들의 설비와 생산공정들을 로력절약형, 전기절약형으로 개조하고 국내원료와 자재로 인민들의 호평받는 소비품생산을 늘이며 농업부문에서 우량종자와 과학농법을 적극 받아들여 뜻깊은 올해 알곡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당의 구상을 높이 받들고 산림조성과 보호관리사업을 짜고들어 도의 면모를 사회주의문명강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일신시켜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을 정규적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일흔돐이 되는 올해에 전투정치훈련을 강화하여 로농적위군과 붉은청년근위대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다져나갈데 대하여 그들은 강조하였다.

함경남도에서

함경남도군중대회에서는 조선로동당 함경남도위원회 위원장 김성일동지의 보고에 이어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김봉영동지, 2.8비날론련합기업소 지배인 장명학동지, 함흥시회상구역협동농장경영위원회 위원장 김금룡동지, 함흥화학공업종합대학 총장 한성일동지가 결의토론을 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올해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장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선 도안의 전체 인민들의 가슴가슴은 끝없는 격정과 혁명저열의에 넘쳐있다고 말하였다.

지난해 전력, 석탄공업과 경공업, 농업, 수산업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전투목표들을 빛나게 수행하고 도혁명사적관개건물사와 함흥초등학원, 중등학원, 함흥과학자살림집 2단계건설, 성천강가방공장 등이 완공되였으며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실현에서 새로운 성과들이 이룩된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당이 가리키는 길은 곧 과학이고 승리이라는 철리를 신념으로 간직하고 오늘의 만리마속도창조대진에서 영웅적조선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폭발시켜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도안의 전력공업부문에서 전력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며 단천발전소와 새로운 전력생산기지들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2.8비날론련합기업소와 흥남비료련합기업소를 비롯한 화학공업부문에서 주체비날론과 비료, 여러가지 화학제품생산을 늘이면서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을 위한 단계별목표를 원만히 수행하며 금속, 기계, 석탄공업부문과 단천지구광산, 공장, 기업소들에서 혁신의 동음을 높이 울려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농업부문에서 우량종자와 다수확농법, 능률적인 농기계들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이고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반드시 점령하며 축산물과 과일, 온실남새와 버섯생산을 늘여 인민들이 실지 덕을 보게 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수산전선에서 배두이와 배수리능력을 높이고 과학적인 어로전과 양어와 양식을 힘있게 벌려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가져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2면으로 계속

천만군민을 정신력의 강자들로 키우시여

인민의 꿈과 리상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가장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전인미답의 생눈길을 헤치며 위대한 창조와 변혁을 이룩해나가는 사회주의강국건설과정은 그 주인인 사람들을 주체사상을 뼈속까지 체질화한 참다운 혁명가, 정신력의 강자로 키우는 과정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전체 인민이 존엄높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사회주의강국의 미래를 반드시 앞당겨올것이라고 선언하시였다.

당중앙의 구상과 결심은 곧 과학이고 실천이다.

이 땅의 천만군민은 이 철의 진리를 심장깊이 새겨안고 결사관철의 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최대로 분출시켜 올해 당에서 제시한 전투적과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해나갈 열의로 심장을 끓이고 있다.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과 생사운명을 같이하며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한몸바쳐 싸워나갈 의지가 온 나라에 차넘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의 만리마대진군에서 영웅적조선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폭발시켜야 합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정신력은 이 땅의 모든 기적을 낳는 어머니이다.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기본열쇠는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다는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강의한 정신력으로 자기의 꿈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신다.

그이께서는 사상을 주고 의지를 주시고 백년대계의 투쟁전략을 안겨주시며 천만군민이 한마음한뜻으로 뭉쳐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폭풍쳐나가도록 이끌어주고계신다.

사상을 혁명의 원동력으로 삼고 사상교양에 화력을 집중하여 전체 군인들과 인민들을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뼈속깊이 새긴 사상의 강자들로 튼튼히 준비시켜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불굴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도록 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는 주체조선의 모든 승리와 영광의 원천이다.

몇해전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천지를 통채로 뒤흔드는 사나운 눈보라를 헤치시며 백두산에 오르시였다.

자신께서 오늘 백두산에 오른것은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위대한 정신력의 근본원천인 백두의 혁명정신이 어떻게 마련되였는가를 더 깊이 체득하고 온 나라에 백두의 혁명정신과 기상이 차넘치게 하기 위해서이라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살며 투쟁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

이는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는 완강한 공격정신이며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끝까지 싸우는 견결한 투쟁정신이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안고 살면 세상에 무서울것도 얼고 못해낼 일도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 신념은 그대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으로 되였으며 사상정신적특질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따라 우리 인민이 높이 발휘해온 자력갱생의 혁명정신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손길아래 백배로 다져지게 되였다.

그이의 품속에서 우리 인민은 자강력제일주의를 신념으로 간직한 자강력의 강자, 마음만 먹으면 그 무엇도 제손으로 만들어내는 이 세상에서 가장 힘있는 인민으로 되였다.

자력자강의 정신은 우리 인민의 꿈과 리상을 실현해나갈수 있게 하는 불패의 힘의 원천이며 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한 만능의 보검이다. 우리 당은 지금까지 남을 믿고 혁명을 한것이 아니라 우리 인민의 정신력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령도하여왔다. 우리는 앞으로도 자기의 힘으로 승리를 이룩하여야 한다는것이 우리 원수님의 신념이며 의지이다.

이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안으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세기적인 전변과 비약의 원대한 구상을 펼쳐오시였으며 인민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창조와 건설에서 영웅적위훈을 떨치게 하시였다.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에서 우리 식의 지하전동차를 만들어냈을 때였다.

기업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이 새로 만들어낸 지하전동차를 보고 또 보시면서 정말 잘 만들었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 식의 지하전동차를 새로 개발생산하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지만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을 바치시여 마련해주신 주체공업의 거대한 잠재력과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들, 과학자, 기술자들의 가슴마다에 뜨겁게 끓어번지는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 대한 불타는 충정의 마음, 불굴의 정신력이 있었기에 짧은 기간에 훌륭히 만들어낼수 있었다고 말씀하시였다.

지하전동차의 시운전날에도 우리가 만든 지하전동차에 인민을 태우게 된것이 그리도 기쁘시여 온 세상이 밝아지도록 환히 웃으시며 자신께서 바치신 로고는 고스란히 묻어두시고 우리 로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자력자강의 정신을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불굴의 정신력!

이것은 혁명의 준엄한 길을 폭풍쳐달려온 년대들에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손길아래 다져지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더욱 높이 발휘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무한대한 창조력의 원천이다.

우리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백배로 분출시키시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치신 심혈과 로고가 그 얼마인지 모른다.

쉬임없는 전선길,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면서도 그리고 조국력사에 길이 빛나는 중요회의들을 지도해주실 때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언제나 대중의 정신력발양에 대하여 강조하여오시였다.

어느해 한 공장을 찾으시어 로동자들의 정신력을 발동시키지 못한다면 아무리 첨단설비들로 장비한다고 하여도 생산을 절대로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없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은 기적을 낳는 원천은 대중의 앙양된 정신력이라는것을 다시금 깊이 새겨주고있다.

또 언제인가 한 공장을 현지지도하실 때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 공장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방대한 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낸데 대하여 만족해하시며 생산자대중의 정신력을 폭발시키는것이 기본이라고, 공장에서 생산공정을 현대화하고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한것도 중요하지만 생산자대중의 정신력을 불러일으켜 자체의 힘으로 공장을 현대적으로 꾸린것이 더 귀중하다고, 핵무기보다 더 큰 힘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 수산부문 일군들과 어로공들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황금해의 새 력사도 펼쳐주시고 그들이 쌓아올린 불교기보물산을 위대한 정신이 응축된 위훈의 탑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이 땅에 빛나는 만년대계의 희한한 창조물들과 사회주의선경마을들 그 어디에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정신력의 강자들로 키워주시려 심혈을 기울이신 잊지 못할 이야기들이 깃들어있다.

대중의 정신력을 불러일으켜 광명한 미래를 앞당겨오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총정의 70일전투와 200일전투에서도 력사에 류례없는 기적적승리와 성과를 이룩하였다.

적대세력들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아보려고 발악할수록 천만군민의 불굴의 정신력은 더욱더 강해졌으며 세상을 놀래우는 위대한 기적을 낳았다.

세인을 경탄시킨 지난해의 그 모든 자랑스러운 성과들도 그 어떤 어려운 일이든지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무조건 관철하는것을 체질화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완강한 공격기질, 한계를 모르는 무한대한 정신력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 아니던가.

우리 군대와 인민은 투쟁이 간고할수록 더욱더 분발하여 입버서고 시련앞에서 주저와 동요를 모르는 사상과 신념의 강자, 정신력의 강자들이다.

새해의 장엄한 진군길에 들어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승리에 대한 신심은 더욱 굳세여지고 기세는 충천하다.

우리 혁명의 전두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계신다.

그이의 품속에서 불굴의 정신력의 강자들로 더욱 억세여진 천만군민에게 그 무엇이 두려울것이 있으며 뚫지 못할 난관, 점령 못할 요새가 어찌 있을수 있겠는가.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영웅조선의 강용한 기상을 떨치며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은 그 누구도 막지 못할것이며 천만의 심장을 혁명열, 투쟁열로 끓어번지게 하는 불굴의 정신력이 있는 한 최후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본사기자 김철혁

공화국창건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의 하루하루가 이 땅에 장엄히 흐르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자구구 심장에 새기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떨쳐나갈 필승의 신심에 넘쳐 일터와 초소마다에서 집단적혁신의 불바람을 일으켜나가는 천만군민모두의 가슴마다에 불굴의 신념이 세차게 맥동친다.

전세대들의 투쟁정신을 이어!

생존을 위협하는 최악의 역경속에서 과연 어떻게 이 땅에는 새로운 비약과 번영의 날과 달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가에 대한 대답이 여기에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주체조선의 건국과 발전행로에 빛나는 영웅적투쟁과 집단적혁신의 전통을 이어 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야 합니다.》

전세대들의 투쟁정신이 천만군민에게 삶과 희망, 생활로 간직되여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발휘되는 조국의 벅찬 숨결을 대할수록 하나의 못 잊을 이야기가 되새겨진다.

두해전 1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찾으시였을 때였다.

생산된 제품들을 일일이 보아주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에 꾸려진 가방용천생산공정은 당에서 바라는 우리 식 생산공정이라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오늘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동무는 천리마를 탔는가라는 물음에 대답하며 기적과 위훈을 떨친 전세대들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을 이어받아 동무는 만리마를 탔는가라는 물음에 대답할수 있게 살며 투쟁해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날의 절세위인의 뜻깊은 말씀을 되새길수록 우리 혁명의 발전행로에 수놓아진 로동계급의 영웅적투쟁정신과 투쟁기풍이 뜨겁게 어리여온다.

전후 6만t능력의 분괴압연기에서 12만t의 강판을 생산한 강선의 로동계급, 천리마운동의 불길속에 소극과 보수를 불사르며 《천리마》호뜨락또르와 《승리-58》형화물자동차를 만들어냈고 두줄기궤도우에 전기기관차의 기적소리도 높이 울리였던 우리 로동계급이였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우리 로동계급은 한가정이 아니라 나라와 공장을 먼저 생각하며 일터로 나갔고 희리며를 조이면서도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만년토대를 다져놓지 않았던가.

그렇다.

혁명의 년대마다 위대한 당을 결사수호한 전세대들의 투쟁정신이 이 땅우에 그대로 이어지게 하여 우리의 힘과 기술로 온 세상에 빛을 뿌리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이다.

올해의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천리마의 대진군으로 세기적인 변혁을 이룩한 전세대들의 투쟁정신을 이어 누구나 시대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는 만리마선구자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전세대들의 투쟁정신을 이어

오늘의 만리마선구자는 다름아닌 전세대들의 투쟁정신을 이어나가는 사람들이다.

천리마에 이어 만리마의 시대를 창조해나가는 기적의 원천이 불굴의 정신력이라면 그 정신력의 원천은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이다.

당에 대한 충정으로 심장의 피를 펄펄 끓일 때 력사의 그 어떤 기적도 창조할수 있다는것이 지나온 혁명의 년대마다 전세대들이 확증한 철의 진리이다.

모두다 불굴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총폭발시켜 공화국창건 70돐을 뜻깊게 맞이하자.

본사기자 채히성

모든 사업의 기준—인민의 요구와 리익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신년사에서 인민들의 요구와 리익을 기준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전개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사랑의 숭고한 혁명실천으로 그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최우선, 절대시

몇해전 4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만수교교기상점에 나오시여 준공을 축하하시였다.

이 상점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그토록 마음쓰신 어버이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다심한 은정에 의하여 마련된 인민사랑의 창조물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깊이 간직하시고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시며 친히 교기상점건설을 발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여러차례나 상점건설장을 찾으시여 교기상점은 인민들이 즐겨찾을 곳인것만큼 구매자들의 편리를 최대로 보장할수 있게 건설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공사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그리고 시공에서 인민성, 친절성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을 비롯하여 주방의 위치와 상점간판과 같은 세부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그러시고도 상점이 최상급의 상업봉사기지로 훌륭히 일떠섰을 때에는 내리는 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현지에 나오시여 준공을 축하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상점을 돌아보시면서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 인민에게 보다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려는것이 당의 의도이라고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거룩한 모습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할데 대한 그이의 숭고한 뜻을 다시금 깊이 새겨안게 되였다.

대단히 중시하시는 공장

지난해 6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로 건설된 평양치과위생용품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는 소식이 전해질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이 공장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직접 발기하시고 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도 일일이 풀어주시였으며 현대적인 치과위생용품생산설비들까지 일식으로 마련하여주신 이 공장은 년간 수천만개의 치약, 함수약, 각종 치과위생도구들을 생산하는 능력이 큰 치과위생용품종합생산기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각종 치간실과 솔이 달린 이쑤시개들, 물이세척솔, 혀긁개, 혀솔 등을 생산하는 치과위생용품생산공정도 아주 잘 꾸려놓았다고 하시며 제품들의 질도 괜찮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치과위생용품공장은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하는 공장, 자신께서 대단히 중시하는 공장이라고 하시며 공장의 관리운영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공화국의 존엄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는 민족사적대사변들을 련이어 안아오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인민들이 리용할 치솔 하나, 치약 한개에 이르기까지 그토록 마음쓰시며 현지에까지 나오시여 자신께서 대단히 중시하는 공장이라고, 인민들의 무병장수를 위한 보람있는 일을 또 하나 해놓고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자신께서 모두 풀어주시겠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를 우러르며 일군들은 치솔 하나는 비록 작은것이지만 인민들이 리용하는것이기에 그것을 생산하는 공장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마음속에 언제나 대단히 중시하는 공장으로 자리잡고있음을 깊이 느끼였다.

본사기자 김준혁

재부중에서도 제일 귀중한 재부는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답을 주는 하나의 감동깊은 이야기가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며 인민을 믿고 인민에게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는 마나면 하늘길, 때길, 령길을 달려 조국의 최북단 라선시의 큰물피해복구전투장을 찾으시여 인민사랑의 숭고한 화폭을 펼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거룩한 모습이 소중히 간직되여있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피해복구전투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인민군지휘성원들에게 인민군대만이 창조할수 있는 기적이라고, 폭풍처럼, 화약에 불이 달린것처럼 벽제축조를 해제꼈다고 거듭 치하하시였다.

이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속도전, 립체전, 섬멸전을 벌려 살림집건설과 보수, 지대정리를 비롯한 복구건설을 와닥닥 해제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런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재부중에서도 제일 귀중한 재부가 인민들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인민들의 믿음이면 더 바랄것이 없다는 관점을 가지고 멸사복무의 정신으로 인민들의 그 믿음에 보답하여야 합니다.

그이의 뜨거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안으며 지휘성원들은 얼마나 감격에 목메였던가.

우리 당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고 인민들에게 보다 행복하고 유족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투쟁하는 당이라고, 라선시피해복구전투는 단순히 자연재해의 후과를 가셔내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우리 인민들의 가슴속에 간직된 당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성스러운 투쟁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제일 귀중한 재부

인민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사랑, 끝없는 헌신의 정신은 군인건설자들이 짧은 기간에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최상의 수준에서 살림집건설과 주변정리를 완전히 끝내고 라선땅에 행복의 무릉도원을 펼쳐놓을수 있게 한 창조와 기적의 원동력이 되였다. 그들은 살림집건설을 통하여 인민군대가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일뿐아니라 인민의 믿음의 수호자라는것을 긍지높이 보여주었다.

그후 라선시의 피해지역이 사회주의선경마을로 훌륭히 일떠섰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또다시 이곳을 찾으시였다.

새로 건설한 살림집들을 자신께서 먼저 돌아보아야 마음이 놓일것 같아 찾아왔다고 하시는 그이를 우러르며 지휘성원들은 뜨거운것을 삼키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불과 3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또 하나의 선경마을이 생겨났다고, 우리 인민군대는 아무리 어렵고 방대한 과업이라도 무조건 해낸다고 하시며 자신께서는 인민군대를 굳게 믿었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조국의 북변땅에서 이룩한 이 성과는 당과 대중의 일심단결, 군민대단결의 위대한 승리이라고,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일심단결의 힘, 군민대단결의 힘이 있었기에 자연의 혹독한 전횡도 맥을 추지 못하고 전대미문의 피해도 단숨에 가실수 있었다고 선언하시였다.

이윽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라선전역에서 발휘한 인민군군인들의 위훈을 생각하면 가슴이 후더워지고 세상에 대고 자랑하고싶은 심정을 금할수 없다고, 기념사진을 찍고 가야지 그대로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수만명의 군인들이 한자리에 모일 때까지 무려 1시간 30분동안이나 기다려주시였다. 그리하여 라선땅에서는 최고사령관의 두리에 어깨성을 쌓은 군인들이 자기들이 건설한 살림집들을 배경으로 기쁨에 웃고웃으며 기념사진을 찍는 가슴뜨거운 화폭이 펼쳐졌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가 있은 다음날 라선시 선봉지구 주민들의 입사모임이 진행되였다. 그날 어머니 우리 당을 우러러 인민이 더친 로동당만세, 사회주의만세소리는 온 라선땅을 진감하였다.

인민들의 믿음을 제부중에서도 제일 귀중한 재부로 간직하시고 위대한 애국, 애민의 헌신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가 있어 조국땅 방방곡곡에서 전변의 기적들이 창조되고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하늘땅을 진감하고있는것이다.

주체107(2018)년 새해의 첫아침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력사적인 신년사의 구절이 천만군민의 심장을 공공 울린다.

새해의 장엄한 진군길이 시작되는 이 시각 인민의 지지를 받고있기에 우리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라는 확신으로 나는 마음이 든든하며 전력을 다하여 인민의 기대에 기어이 보답할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게 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 말씀은 천만군민의 심장을 억세게 틀어잡고 새로운 승리를 향한 총진군에로 더욱 힘차게 고무추동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령도가 있고 그이께서 더욱 반석같이 다져나가시는 일심단결이 있기에 2018년은 또 하나의 승리의 해로 될것이라는것이 새해의 장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팀없는 확신이다.

본사기자 김성남

1면에서 계속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을 높여 우리 식의 주체적인 생산공정들을 확립하고 원료와 자재, 설비를 국산화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리며 도에서 내세운 건설목표들을 무조건 수행하고 산림조성과 보호관리, 강하천정리를 잘해나갈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당, 근로단체조직들과 정권기관 일군들이 모든 사업을 일심단결을 강화하는데 지향시키고 복종시켜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사상을 빛나게 구현해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량강도에서

량강도군중대회에서는 조선로동당 량강도위원회 위원장 리상원동지의 보고에 이어 혜산시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동지, 도림업관리국 국장 유치정동지, 혜산시협동농장경영위원회 위원장 김일동지, 김정숙사범대학 학장 김미남동지가 결의토론을 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혁명적인 총공세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자!》라는 전투적구호를 높이 들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세번째 해인 올해에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개선향상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모든 일군들이 당과 혁명앞에 지닌 사명감을 자각하고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군중과 정을 나누고 고락을 같이하며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신년사과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도안의 전체 인민들이 주체혁명의 성지가 자리잡고있는 영광의 땅에서 살며 일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삼지연군을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으로, 전국의 모범군, 본보기군으로 꾸리기 위한 투쟁에 충정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삼수발전소를 비롯한 전력생산기지들에서 발전설비들을 제때에 정비보강하고 구조물관리를 짜고들어 인민경제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전방인 농업전선에 힘을 집중하여 농사에 필요한 영농물자와 설비, 자재들을 책임적으로 보장하며 실천을 통하여 그 우월성이 뚜렷이 확증된 대흥단식과학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여 감자대풍을 안아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림업부문의 일군들과 통나무생산자들이 겨울철통나무생산전투를 힘있게 벌려 경제강국건설의 주요전투장들마다에 더 많은 통나무를 보내줄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교원들의 자질과 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현대교육발전추세에 맞게 교수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혁신하며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라선시에서

라선시군중대회에서는 조선로동당 라선시위원회 위원장 림경만동지의 보고에 이어 시인민위원회 위원장 조정호동지, 라선청년발전소 지배인 방기춘동지, 시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 주봉원동지, 라진해운대학 부학장 김정수동지가 결의토론을 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를 높뛰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시안의 전체 인민들은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맞이하는 뜻깊은 올해에 혁명의 새 승리를 안아올 신심과 락관에 넘쳐있다고 말하였다.

지난해 시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만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필승의 신념을 간직하고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제재압박책동속에서도 라선중등학원, 라선가방공장 등을 훌륭히 일떠세운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시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말씀을 지침으로 삼고 자기 단위앞에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무조건 수행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라선청년발전소에서 전력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는것과 함께 불비한 발전설비들을 정비보강하며 전력망비헌상과의 투쟁을 힘있게 벌려 생산된 전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경공업공장들을 비롯한 시안의 공장들에서 지방경제를 특색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경영전략을 확립하며 농업전선에서 과학적인 영농방법들을 널리 받아들여 알곡 정보당 수확고를 결정적으로 높이고 축산물과 과일, 온실남새와 버섯생산, 양어를 근기있게 내밀어 인민들이 실지 력을 보게 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라선경제무역지대활성화를 위한 물질적토대를 튼튼히 마련하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과학기술보급사업을 강화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려나가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조선의 전국과 발전행로에 빛나는 영웅적투쟁과 집단적혁신의 전통을 이어 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대회들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사회주의전진가》노래주악으로 대회들은 끝났다.

이어 군중시위들이 있었다.

시위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결사관철하여 인민의 리상과 꿈을 이 땅우에 찬란한 현실로 꽃피워갈 혁명열, 투쟁열로 심장을 끓이면서 혁명적인 구호들을 힘차게 웨치며 광장과 거리들을 누벼나갔다.

【조선중앙통신】

최룡해동지

송도원종합식료공장 현지료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가 송도원종합식료공장을 현지에서 료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이곳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적인 총공세의 불길높이 새해 첫 전투에서 련일 혁신적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최룡해동지는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면서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힘있게 벌리며 관리운영사업을 짜고들어 모든 기대들을 만부하로 돌리고있는 그들의 투쟁성과를 적극 고무해주었다.

도안의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공장이 차지하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최룡해동지는 지방의 원료원천에 의거한 명제품, 명상품들을 더 많이 생산공급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최룡해동지는 이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갈마식료공장을 돌아보면서 우리 인민들에게 맛좋은 물고기가공품들을 안겨주려는 당의 숭고한 의도를 철저히 관철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서 더 많은 물질적재부를 창조하자

기술혁신으로 얻은 생산장성의 예비

순천기관공장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적잠재력과 내부예비를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을 늘이는것과 함께 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을 높이 받들고 순천기관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산악같이 떨쳐나섰다.

이미 80hp기관생산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수 있는 밝은 전망을 열어놓은 공장에서는 사회주의수호전의 첨마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협동품생산에 드센 박차를 가하고있다. 여기서 주목되는것은 구상흑연주철을 리용하여 크랑크축을 생산함으로써 자재소비를 1/3로 줄이고 로력과 전력 등을 철씬 절약하게 된것이다. 크랑크축가공기일도 단축되여 생산성은 종전보다 몇배로 높아졌다.

국가과학원 흑색금속연구소와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과학자, 연구사들의 방조밑에 도입된 이 기술에 의하여 공장에서는 같은 로력과 자재로 새형의 트락또르생산에 필요한 기관을 더 많이 생산보장할수 있게 되였다.

이 성과속에는 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려 생산장성의 길을 열어온 공장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위훈이 깃들어있다.

지난해 새형의 트락또르제작에 필요한 기관생산전투가 시작되였을 때였다. 공장앞에는 크랑크축생산이 어려운 문제로 나섰다.

당시 소재로 쓰이는 합금강을 다른 단위에서 받아온 후 그것으로 크랑크축을 만들기까지는 거의 20여일이 걸리였다. 로력과 자재소비도 많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원가가 많이 드는것은 물론이고 생산기일을 보장할수 없었다. 당도는 과학기술에 의거한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구상흑연주철에 의한 크랑크축생산방법을 받아들이는데 있었다.

공장의 전체 종업원들은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난관을 돌파할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기술혁신전투를 벌려 새로운 방법으로 크랑크축을 생산하자.

모두의 분발심은 대단하였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지배인을 비롯한 일군들은 앞장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갔다.

새로운 크랑크축가공공정을 꾸리기 위한 전투가 벌어졌다.

공장의 오랜 기술자, 기능공들의 창조적지혜를 적극 발동해나가는 과정에 도처에서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이 창안되였다.

당면한 기관생산과제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공정을 꾸린다는것은 험한 일이 아니였다. 그러나 공장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3가공직장의 선반들을 크랑크축을 가공할수 있게 대담하게 개조하고 12종에 50여개의 지구와 장비들을 새롭게 제작하였다.

허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였다. 여러가지 기술적문제들이 발목을 잡았던것이다.

이곳 기술자, 로동자들에게는 구상흑연주철을 리용하여 크랑크축을 만들어본 경험이 없었다.

공장일군들은 구상흑연주철생산공정이 꾸려지었는 단위들에서 경험을 배우는 한편 공장의 기술자들이 국가과학원 흑색금속연구소와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과학자, 연구사들의 적극적인 방조를 받으며 기술혁신전투를 벌려나가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공장으로 달려나온 과학자, 연구사들은 자체의 힘으로 크랑크축을 제작하기 위하여 떨쳐나선 이곳 기술자, 로동자들과 함께 현장에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기술혁신전투를 맹렬히 벌려나갔다.

그러나 착상과 실천사이에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었다.

여러차례의 시험에서 주물품에 기포가 생기는 등 실패가 거듭되였다.

그러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가슴마다에는 첫 80hp트락또르기관을 제작한 자기들에게 안겨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깊이 간직되어있었다. 모두가 결사의 의지로 더운 피를 끓이며 용기백배하여 줄기찬 투쟁을 벌려나갔다.

성공의 열쇠는 크랑크축소재의 배합비를 잘 조성하는것과 합리적인 주물방법을 받아들이는데 있었다.

공장의 당, 행정일군들은 기술혁신전투에 참가한 성원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직접 창조자, 개발자가 되여 그들과 함께 여러차례의 시험을 거듭하였다.

이 과정에 새로운 크랑크축을 제작할수 있는 구상흑연주철의 가장 합리적인 배합비를 찾아내게 되였으며 주물방법도 대담하게 혁신하였다.

하여 공장에서는 국가과학원 흑색금속연구소와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과학자, 연구사들의 적극적인 방조속에 구상흑연주철로 첫 크랑크축을 제작하는데 성공하였다.

기술혁신전투에 참가한 성원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구상흑연주철크랑크축의 기본원료인 선철의 기술적지표를 충분히 만족시키기 위한 탐구의 길을 이어나갔다.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가며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려온 이들의 노력에 의하여 선철을 재용해하여 리용하는 방법이 완성되였다.

결과 크랑크축생산을 늘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려 공장에서는 자재와 로력을 극력 절약하면서 크랑크축을 만들어내게 되였다. 주물방법도 새롭게 혁신하여 기관을 종전보다 수십kg이나 경량화하였다.

현재 순천기관공장에서는 구상흑연주철크랑크축을 설치한 기관들의 성능시험준비를 마감단계에서 추진하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이룩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보다 경제적실리가 큰 새로운 방법으로 크랑크축소재를 생산하기 위한 기술혁신전투를 벌리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를 피끓는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과학기술에 의거한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는 순천기관공장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올해에도 기관생산전투에서 놀부신 성과를 이룩할것이다.

명 춘 길

절약은 곧 증산

◇ 경제전선전반에 혁명적인 총공세의 기상이 나래치고있다.

발전기를 지켜선 전력생산자들도, 강철로 당을 받들 신념과 의지로 피를 끓이는 용해공들도, 새형의 트락또르와 화물자동차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 떨쳐나선 로동계급도 2018년의 새로운 승리를 향해 또다시 큰걸음을 내짚었다.

이들만이 아니다. 탄부들과 수송전사들, 주체비료생산자들과 세멘트생산자들을 비롯한 경제전선의 미더운 용사들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정신을 더 높이 발휘하며 당과 조국이 맡겨준 일터마다에서 힘찬 생산돌격전을 벌리고있다.

◇ 증산과 절약!

이것은 단순히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미제를 비롯한 온갖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제재책동에 걸음걸음 방구멍을 내기 위한 총포성없는 전쟁이며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또 하나의 애국사업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서 자체의 기술력량과 경제적잠재력을 총동원하고 증산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려 더 많은 물질적재부를 창조하여야 합니다.》

우리 혁명의 전력사가 그러했지만 오늘의 하루하루, 일분일초는 이 땅에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불바람이 더욱 드세차게 휘몰아치게 할것을 요구하고있으며 최대한 증산하고 절약하는 애국자들을 부르고있다.

새로운 시대정신의 창조자들인 강원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원산군민발전소 물길굴공사과정에 굴진정이 련속 붕락되고 시간당 수천㎥의 지하수가 터져나올 때 도의 한 공장에서 나오는 공업부산물로 급결제를 만들어 리용하였다. 지난 시기 쓸모없이 버려진 부산물을 귀중한 재부로 전환시킨 이들의 투쟁은 자기의것을 귀중히 여길 때 무에서 유가 창조된다는것을 실천으로 뚜렷이 보여주었다.

국가통합전력관리체계를 높은 수준에서 구축운영하여 도안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함으로써 나라에 보탬을 주고있는 함경남도송배전부 일군들과 로동계급처럼, 제자원화가 실현된 에네르기절약형의 증기생산공정을 확립하여 비료증산과 전기절약의 믿음직한 담보를 마련한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처럼 일할 때 모자라던것도 남게 되고 나라살림살이에 보탬을 주는 재부들도 더 많이 마련될것이다.

◇ 최대한 증산하고 최대한 절약하자.

증산절약의 중요한 열쇠는 과학기술을 틀어쥐는데 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과학기술을 앞세우고 생산공정을 높은 수준에서 현대화하며 최소한의 원가로 최대한의 실리를 얻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나는 조국을 위하여 무엇을 바쳤는가, 이 물음은 물질적재부를 창조하는 일터들에서만이 아니라 거리와 마을, 가정과 공원, 유원지 등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애국의 슬결로 맥박쳐야 한다.

지금 이 시각도 우리 탄부들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천kg의 석탄이라도 더 보내주기 위해 지하막장마다에 위훈의 자욱을 새겨가고있다. 화력발전소들에 가면 적은 량의 석탄으로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애쓰는 로동계급의 모습을 볼수 있다.

석탄, 전력뿐아니라 이 땅의 모든 재부가 그렇게 마련되고있다.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처럼 귀중히 여길줄 모르는 사람은 공민적의무를 다한다고 볼수 없다. 절약투쟁은 조국이라는 큰집을 애국의 량심으로 떠받들어야 하는 자기자신을 위한 일이다.

너도나도 떨쳐나 최대한 증산하고 절약함으로써 원쑤들의 제재봉쇄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우리의 자원과 기술로 더 많은 물질적재부를 창조하자.

실리적인 조종체계를 확립

대안전기공장에서

대안전기공장 공업시험연구소 기술자들이 려자전압조종체계를 새롭게 확립함으로써 많은 전기를 절약하면서도 직류전동기들의 부하시험을 높은 질적수준에서 보장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생산을 전문화하고 실리를 보장하는 원칙에서 전력소비가 큰 생산공정들을 대담하게 정리, 갱신하며 과대용량설비들을 알맞는것으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지난 시기 공장에서는 전동기들의 부하시험에 필요한 려자전압보장을 위하여 직류발전기와 전동기를 비롯한 여러 설비들을 리용하다보니 많은 전기가 소비되였다. 시험에 쓰이던 설비들의 보수에도 적지 않은 품이 들었다.

공업시험연구소 소장 김선무동무와 장정남, 소원동무들은 전기를 절약할데 대한 당정책을 높이 받들고 새로운 려자전압조종체계를 확립할것을 결심하였다. 이들은 중주파유도로의 정류회로를 분석하는 과정에 얼마든지 자체의 힘과 기술로 려자전압조종체계를 만들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였다.

자체의 기술로 조종체계를 설계한 이들은 김책공업종합대학과의 련계밑에 조종기관을 제작하고 설비를 조립하기 시작했다.

지배인을 비롯한 일군들은 절약이자 큰 생산이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조종체계확립을 적극 떠밀어주었다. 일군들은 부족한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였지만 예비를 찾아내여 설비조립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풀어주었다.

몇달전 조립을 끝낸 이들은 운영시험에 들어갔다.

첫 시험은 실패로 끝났다. 요구하는 전압특성이 잘 보장되지 않았던것이다.

연구소의 기술자들은 밤을 새워가며 과학기술문헌들을 탐독하고 수십차례의 콤퓨터모의시험을 통하여 끝내 원인을 찾아내였다. 그리하여 설계로부터 제작에 이르기까지 조종체계의 모든것을 자체의 힘으로 완성해내고야말았다.

이들이 개발한 체계는 충분한 시험과정을 통하여 그 성능이 확증되였다.

조종체계를 새로 확립함으로써 종전의 기계식부하시험방법에 비해 전력소비는 1/4로 줄어들고 설비보수에 들던 많은 자재와 로력을 절약하게 되였다. 뿐만아니라 기계식부하시험에 쓰이던 설비들을 다른 용도에 리용할수 있게 되였다.

공업시험연구소의 기술자들은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전기절약예비를 더 많이 찾아내기 위한 탐구의 길을 걸으면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관철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최 영 조

유휴자재를 리용하니 얼마나 좋은가

청진어구공장에서

최근 청진어구공장에서 생산한 양식용바줄이 그 질이 좋아 수요자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탕김세기가 그전의 바줄보다 2배나 높고 뚫힘이 큰것으로 하여 떼소요량도 종전에 비해 1/3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보다 우리의 호기심을 자아낸것은 이 바줄의 기본자재가 다름아닌 파그물이라는 사실이였다.

주변에 흔한 유휴자재로 질좋은 바줄을 만드는 사람들, 소문없이 큰일을 하는 이들을 찾아 우리는 취재길에 올랐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내부예비를 남김없이 동원하여 최대한으로 증산하고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우리가 작업현장에 들어서니 정연하게 배치된 정방기, 합사기들이 경쟁적으로 가동하고있었는데 한쪽에 기본생산자재인 파그물이 보기 좋게 쌓여있었다.

파그물을 정방기에 물리던 로동자 신강용동무가 우리를 반겨맞으며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사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자재가 걸렸소, 설비가 걸렸소 하고 조건타발만 하며 제자리걸음만 했습니다.》

이렇게 서두를 뗀 그는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지난 시기 공장에서는 바줄생산에 리용되는 기본자재를 다른 단위에서 받아오군 하였다. 그런데 때때로 자재보장이 잘 안되여 심적이 떨어지고 종업원들의 생산열의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주었다.

두해전 새로 임명되여온 김룡국지배인의 마음은 무거웠다.

현시기 당이 펼친 황금해의 새 력사를 빛내여나가는데서 중요한 몫을 맡고있는 공장이 지금처럼 계속 우만 쳐다본다면 언제 가도 제힘으로 생산정상화를 실현할수 없었다.

지배인은 종업원들속에 들어가 무릎을 마주하고 자재문제해결의 열쇠는 다름아닌 그들자신에게 있다는 자각을 심어주며 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걸린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기 시작하였다.

대중의 창조적지혜를 발동해나가던 과정에 이미전에 제기된 파그물에 의한 바줄생산방법에 대해 알게 된 그는 대용자재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활성화의 돌파구를 열 결심을 더욱 굳게 가졌다. 그가 발이 닳도록 여러 수산사업소들을 찾아다니며 수집한 파그물이 질좋은 바줄이 되여 흘러나오고 여기저기에서 공장제품을 요구하는 단위들이 늘어나자 종업원들속에서는 자기 일터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높아지고 자기 힘으로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울리려는 자각이 더욱 강렬해졌다.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오를 이끄는 일군의 뒤를 따라 모든 종업원들이 공장을 추켜세우기 위한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이 과정에 서치남, 리경삼동무를 비롯한 공무작업반의 로동자들이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려 멎어있던 공장의 설비들을 6개월만에 원상복구하고 자체로 바줄길이측정기를 훌륭히 제작해낸것을 비롯하여 련이어 좋은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대용자재로 바줄을 생산하면서부터 공장이 얻는 경제적실리는 대단하였다.

종전과 같은 량의 원료를 쓰면서도 바줄생산량을 2배나 올릴수 있었다. 또한 지난 시기에는 빔조성문제로 하여 겨울철에는 중단해야 했던 바줄생산을 정상화할수 있게 되였다.

1년만에 공장의 생산장성률은 거의 5배로 휘여올랐으며 지난해에는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4월까지 앞당겨 완수하고 한해동안에 100정보이상의 양식장면적을 조성할수 있는 근 30t의 바줄을 생산하여 도안의 여러 단위들에 공급하였다.

공장의 자랑찬 현실은 이들처럼 자체의 기술력량과 내부예비를 남김없이 동원하여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릴 때 어디서나 더 많은 물질적재부를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심 학 철

올해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결사관철하기 위하여 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안주접연물공장에서—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혁명적인 총공세에로 고무추동하는 화선식경제선동 활발

중앙예술단체들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크나큰 격동속에 받아안은 중앙예술단체 예술인들이 전투적이며 기백있는 화선식경제선동으로 새해진군길에 떨쳐나선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달아주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에서 중시하는 대상들에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집중시켜 새로운 비약의 봉화를 지펴올리기 위한 북소리를 세차게 울려야 합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세번째 해인 올해에 경제전선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제낄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새해벽두부터 들끓는 대고조전투장들로 달려나간 중앙예술단체 예술인들이 기동적이고 집중적인 화선선전, 화선선동활동을 힘있게 전개하고있다.

피바다가극단, 국립연극단 예술인들이 울리는 경제선동의 북소리가 새해 첫 전투에 진입한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전력생산자들의 앙양된 열의를 북돋아주었다.

이들은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인 전력공업부문에서부터 총공세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갈것을 열렬히 호소하며 성의껏 마련한 지원물자들을 로동자들에게 넘겨주고 현장경제선동도 힘있게 벌리였다.

혼성2중창 《어머니당에 드리는 노래》, 남성4중창 《자력갱생 기치높이 다시한번 대고조로》, 시랑송 《나는 로동자의 아들이다》 등의 다채로운 종목들을 보며 전력생산자들은 한kW의 전기라도 더 생산하기 위한 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림으로써 전인민적인 총공세의 앞장에서 내달릴 결의를 가다듬었다.

혁명의 년대기마다 높이 발휘하였던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정신으로 나라의 긴장한 전력문제해결을 위해 생산돌격전의 된바람을 일으켜가고있는 동평양화력발전소 로동계급을 찾은 국립민족예술단, 국립교예단 예술인들도 특색있는 화선공연무대를 펼쳐 전투장에 혁명적열정과 랑만이 차넘치게 하였다.

우리 당사상전선의 나팔수, 시대의 선도자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해갈 일념안고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와 득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서 진행한 중앙예술단체 예술인들의 참신하고 호소성이 강한 공연은 그대로 전력, 석탄증산성과로 이어졌다.

김정숙평양제사공장, 류원신발공장,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로 달려나간 예술인들의 방송선전과 출근길경제선동은 신들메를 바싹 조여매고 새해 첫 진군길에 떨쳐나선 이곳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충천한 사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대고조전구들마다에서 높이 울리는 화선식경제선동의 북소리는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떨쳐나선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신의주시 석하협동농장 준공식 진행

신의주시 석하협동농장이 사회주의문화농촌답게 훌륭히 변모되였다.

석하지구가 수십동의 공공건물과 생산건물, 수백세대의 살림집을 갖춘 로동당시대의 또 하나의 선경으로 천지개벽된것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제일생명으로 하며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 우리 당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당의 뜨거운 은정속에 훌륭히 일떠선 신의주시 석하협동농장 준공식이 8일에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평안북도위원회 위원장 김능오동지와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정경일동지, 도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 계명철동지, 관계부문 일군들, 석하협동농장 농업근로자들, 건설에 기여한 지원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준공사를 김능오동지가 하였다.

연설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신의주시 석하협동농장이 우리 당의 은정속에 사회주의농촌문화건설의 본보기답게 훌륭히 일떠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진두지휘하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석하협동농장건설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건물들의 형성안을 일일이 지도하여주시였으며 제기되는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신의주시 석하협동농장을 평양시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처럼 꾸리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지난해 2월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긴장한 돌격전을 벌려 전반적공사를 힘있게 다그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건설지휘부에서는 세멘트와 철근, 흔석, 모래를 비롯한 자재보장대책을 확고히 선행시켜 공사가 일정계획대로 힘있게 추진되도록 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천지개벽된 석하협동농장은 도안의 전체 인민의 자랑이고 긍지이며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고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우리 당이 농업근로자들에게 안겨준 또 하나의 창조물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김정일애국주의를 높이 발휘하여 자기 초소, 자기 일터에서 맡겨진 혁명임무를 책임적으로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연설자는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며 당중앙과 사상과 슴결도 발걸음도 같이하는 열혈의 인간, 참된 혁명전우가 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농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대를 이어 길이 빛내이며 당의 대해같은 은정을 가슴깊이 새기고 더 높은 알곡생산성과로 보답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받들고 과학농사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 농업생산의 기계화비중을 높이며 다수확운동을 힘있게 벌려 뜻깊은 올해에 기어이 흐뭇한 농사작황을 마련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연설자는 당의 은정어린 건물과 살림집들을 알뜰히 관리하며 농장을 인민의 웃음꽃 넘쳐나는 행복의 보금자리,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더욱 아름답게 꾸려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농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일군들이 새집들이한 농업근로자들의 집을 찾아 그들을 축하해주었다.

【조선중앙통신】

그들은 영웅적조선로동계급의 본때로 이렇게 싸웠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 대형산소분리기건축공사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 로동계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은 주체혁명의 핵심부대, 나라의 맏아들답게 당의 사상과 위업을 떤 앞장에서 받들며 경제강국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를 추켜들고나가야 합니다.》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안겨주신 이 영예로운 칭호를 가슴에 안고 우리의 로동계급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지난해에 얼마나 자랑찬 위훈의 자욱을 새겨왔던가.

미제와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을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통쾌하게 짓부셔버리며 승리를 떨쳐온 긍지높은 주체106(2017)년의 갈피속에는 대형산소분리기설치를 위한 건축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냄으로써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철강재생산의 주체화실현에 이바지한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의 투쟁이야기도 있다.

당의 믿음이면 못할 일이 없다

지난해 2월 어느날 깊은 생각에 잠겨 김책제철련합기업소 구내길을 걷는 한 일군이 있었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철강재생산의 주체화를 실현하기 위한 금속공업부문과 련관단위 일군들의 협의회에 참가하였던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 지배인 동훈동무였다. 그의 귀전에서는 방금전에 협의회를 마감짓던 책임일군의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고있었다.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에서는 이번에 대형산소분리기설치를 위한 건축공사를 맡아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철강재생산의 주체화가 당에서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는 중요한 문제라는것을 명심합시다.》

(대형산소분리기설치를 위한 건축공사라…)

동훈지배인은 속으로 련합기업소가 맡아 수행하고있는 건설대상들을 하나하나 짚어보았다.

어랑천발전소건설, 청진중등학원건설, 고무산세멘트공장현대화공사…

어느것 하나 소홀히 할수 없는 건설대상들이였다. 건설로력과 자재, 설비들이 무족한 속에서 대형산소분리기설치를 위한 건축공사를 진행하자면 애로와 난관이 한두가지가 아닐것이다. 어떻게 할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며 걸음을 옮기던 동훈지배인은 저도모르게 어느 한 곳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 평간압연직장건설이 마감단계에서 진행되고있던 주체69(1980)년 7월 어느날 당시 제2금속공장건설련합기업소 지배인을 하던 아버지가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뵈온 곳이였다. 동훈지배인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곳을 찾군 하였다.

지금도 하늘높이 일떠선 평간압연직장건물들을 기쁨에 넘쳐 바라보시며 동순모부대가 건설수준이 매우 높다고, 이 부대는 오랜 건설경험을 가지고있다고, 동순모부대는 자신께서 자래온 부대라고 하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들려오는것만 같았다.

동순모부대! 불러볼수록 동훈지배인의 가슴속에는 기업소의 초대지배인이였던 아버지의 한생과 더불어 련합기업소가 맡아안은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과 믿음이 뜨겁게 되새겨졌다.

해방직후부터 갈대와 잡초만이 무성한 농포밭에 대규모의 야금기지를 일떠세울 원대한 구상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56(1967)년 6월 11일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의 전신인 금속공장건설련합기업소를 창립하여주시고 젊고 능력있는 동순모동지를 사업소의 지배인으로 임명해주시였다.

열간압연직장의 부지성토작업이 한창이던 주체57(1968)년 6월 11일 동순모동지는 건설장을 찾아오신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는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부지성토작업에 필요한 토량을 수공업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고있는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공사를 다그쳐 끝내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그때부터 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준첩선들과 수백대의 장력한 건설기계들을 리용하여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려나감으로써 한달이 걸릴수 있다던 일도 하루밤사이에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주체61(1972)년 6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함경북도에서 관계부문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김책제철련합기업소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몇가지 긴급한 문제들을 협의하시였다. 그런데 협의회에서 몇몇 일군들이 열간압연직장건설에 예견된 한 강철구조물이 당장 들어오기 어렵게 된 실태를 위대한 수령님께 보고드리면서 이런 조건에서 그것을 자체로 만들자면 그에 해당한 특수강종의 자재를 사와야지 그러지 않고 다른 강재로 대용한다면 그우에 실리는 무거운 짐을 감당해낼것 같지 못하다고 말씀올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겨계시다가 남에게 의존할 생각만 해서야 되겠는가고 하시면서 여기에 동순모동무가 왔는가고 물으시였다.

믿음에 찬 눈길로 바라보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우러르는 순간 동순모동지는 수령님의 웅심깊은 뜻을 가슴에 되새기며 이렇게 말씀올리였다.

《위대한 수령님, 우리의 손, 우리 힘으로 기어코 해내겠습니다.

전후에 황해제철소에서 평로를 건설할 때에도 우리 강재로 강철구조물을 만들고 100t이나 되는 천정기중기를 올려놓았는데 지금까지 끄떡없습니다.》

그러면서 동순모동지는 이번에도 기술적으로 잘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있는 강재를 가지고서도 요구되는 강철구조물을 능히 만들수 있을것이라고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매우 만족해하시면서 그의 말을 전적으로 긍정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렁우렁하신 음성으로 우리의 힘, 우리의 강재로 하자는것이 얼마나 좋은가, 기술자들을 동원시켜 우리의것으로 하도록 하자고 힘주어 강조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사람들이 설계를 하고 우리 사람들이 우리 강재를 가지고 건설한 공장이 만약 경우 잘못되였다 하더라도 우리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것을 우선 내가 보증서겠습니다.》

순간 우렁찬 박수가 터져올랐다. 동순모동지는 목이 꽉 메였다. 크나큰 믿음과 불굴의 용맹을 안겨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며 그는 눈굽을 적시였다.

끝없는 흥분과 감격에 눈시울을 적시는 동순모동지와 일군들을 정겹게 바라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윽하여 우리는 자력갱생이라는 구호를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철저히 주체사상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에 립각하여 모든 문제를 보아야 한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동순모동지는 하나의 강철구조물문제를 두고도 그처럼 간곡한 교시를 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언제나 뼈에 새기고 사업하였다. 자신뿐아니라 아래일군들과 온 기업소의 건설자들이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뜻으로 살며 일하도록 이끌어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주체의 담력으로 기업소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건설자들을 발동하여 설계도 실정에 맞게 대담하게 뜯어고치고 자체의 힘으로 강철구조물들을 일떠세웠다.

기존공법이 2년이상의 기일을 요구하던 지하구조물들의 침강공사도 한달안팎에 해내였고 백수십t에 달하는 전로동체들도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불과 몇시간동안에 가벼이 들어올려 정확히 제자리에 조립하였다.

이렇게 지혜가 모자라면 지혜를 주시고 담력과 배짱이 모자라면 담력과 배짱을 안겨주시며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시고도 하나하나의 창조물들이 일떠설 때마다 힘있는 건설부대, 1211고지의 돌격대, 전방척후대와 같은 값높은 칭호들을 거듭 안겨주신 어버이수령님.

진정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는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태어나고 절세위인들의 사랑과 믿음속에 성장해온 전투부대였다.

련합기업소의 50년력사를 더듬어볼수록 동훈지배인의 가슴속에는 당의 믿음이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신심이 더욱 굳게 자리잡았다.

다음날 련합기업소에서 진행된 일군협의회에서는 동훈지배인의 신심에 넘친 목소리가 협의회참가자들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대형산소분리기설치를 위한 건축공사는 우리 련합기업소에 대한 당의 크나큰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 련합기업소가 창립 50돐을 맞이하는 뜻깊은 올해에 기어이 대형산소분리기설치를 위한 건축공사를 제 날자에 다그쳐 끝내고 당에 승리의 보고를 드립시다.》

당의 믿음은 이들에게 있어서 끝 명줄이고 힘이였으며 신심이고 용기였다.

힘있는 건설부대의 영예를 떨치며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의 전체 로동계급은 대형산소분리기설치를 위한 건축공사가 단순한 건설이 아니라 련합기업소를 힘있는 건설부대, 사회주의건설의 전방척후대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려는 미제와 적대세력들의 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결전이라고 생각하였다.

련합기업소로동계급의 영웅적인 투쟁기풍은 공사의 첫시작인 석회배소로해체전투에서부터 남김없이 발휘되였다.

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들을 자체로 해결하여야 하는 형편에서 낡은 석회배소로의 강철구조물들을 해체하여 재리용하는것은 대형산소분리기설치를 위한 건축공사에서 제일 선차적인 문제로 나섰다.

하지만 석회배소로해체작업은 말처럼 쉬운것이 아니였다. 60여m의 높이를 헤아리는 건물꼭대기에서 강철보와 기둥들을 해체하자고 하여도 높은 기술을 요구하였고 우에서부터 아래로 강철구조물을 해체하여 내려오는데만도 몇달이라는 시간이 걸릴지 몰랐다.

때문에 공사지휘부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토론이 분분하였다.

그러나 련합기업소로동계급의 립장은 투철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들을 1211고지의 돌격대, 전방척후대라고 불러주시였다. 지금 제국주의자들이 우리를 질식시키려고 사면팔방에서 달려들고있는데 언제 한가하게 공사를 진행할 형편이 됐는가. 직사포를 고지우로 끌어올려 미국놈들을 쳐부시던 1211고지방위자들처럼 통이 크게 일판을 벌리고 사생결단하여 전투를 벌리자.

련합기업소당조직에서는 전투원들속에 깊이 들어가 대중의 정신력을 폭발시키기 위한 사상전의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를 들이댔다.

석회배소로해체작업은 립체적으로 진행되였고 작업장에서는 날에날마다 새로운 위훈이 창조되였다. 제관조립직장의 전투원들은 25t탑식기중기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과 함께 수십m의 높은 곳에서도 절단작업을 선행시켜 석말은 신히 걸려야 한다던 강철구조물들을 불과 1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해체하였고 설비조립 및 전기자동화1직장의 전투원들은 60여m 높이에서 40t의 강철구조물들과 30t의 콩크리트구조물들을 기중기와 권양기를 배합하여 4단활차법에 의한 끌어당기기방법으로 단번에 통채로 해체함으로써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전투가 시작되여 수십일만에는 그처럼 어렵고 방대한 석회배소로해체공사가 전부 결속되여 대형산소분리기설치를 위한 건축공사를 다그쳐 끝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게 되였다.

당을 받드는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의 심장은 이렇듯 뜨겁고 열렬한것이였다.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의 마음을 안고 그들은 공사과정에 제기되는 온갖 애로와 난관들을 웃으며 맞받아 헤쳐나갔다.

대형산소분리기공기흡입탑을 조립할 때 있은 일이였다.

수백t에 달하는 대형산소분리기공기흡입탑을 조립하자면 그것을 들어올릴수 있는 25t탑식기중기를 수백m 떨어진 곳에서 옮겨와야만 하였다.

육중한 대형기중기를 종전의 방법대로 해체하여 옮겨오자면 아무리 다그친다 해도 적어도 보름은 걸려야 하였다. 그러나 하루빨리 대형산소분리기설치를 위한 건축공사를 끝낼 열의에 충만되여있는 련합기업소로동계급에게는 그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바로 이때 그들의 머리속에 제일먼저 떠오른것은 1970년대초 대형용광로를 건설할 때 두달반은 실히 걸려야 한다던 75t급대형탑식기중기이설을 19일만에 해제낀 전세대 로동계급의 투쟁기풍이였다.

《까짓거, 75t에 비하면 25t이야 아무것도 아니지요. 통채로 옮깁시다.》

《옳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길에서 물러선다면 아버지세대들이 우릴 용서치 않을겁니다. 제일 어려운 작업은 우리 청년들이 맡겠습니다.》

세월이 흘러 세상의 모든것이 다 변한다 해도 당을 받드는 로동계급의 신념만은 절대로 변하지도, 흔들리지도 말아야 한다.

이런 불굴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으로 생필품공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전투원들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긴장한 전투를 벌려 수백톤의 육중한 탑식기중기를 성과적으로 이설하여 흡입탑조립의 돌파구를 열어놓고야말았다.

모든것을 통이 크게 작전하고 대담하게 실천하는 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의 담력과 배짱은 이미 있던 산소분리기의 흡입탑을 해체하는 전투장에서도 높이 발휘되였다. 이들은 높이가 50m나 되는 흡입탑을 통채로 넘어뜨릴것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자칫하면 돌이킬수 없는 사고를 동반하는 위험한 일이였다. 흡입탑으로부터 얼마 안되는 곳으로 고압선이 지나간데다가 넘어지는 과정에 조금만 방향이 달라져도 흡입탑주변의 건물들을 손상시킬수 있었던것이였다. 그런것으로 하여 흡입탑을 통채로 넘어뜨리자는 제기는 처음부터 일부 일군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쳤다.

만약 넘어지는 과정에 큰 사고라도 나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는가.

이 물음앞에서 과연 그들은 무엇을 생각하였던가.

무더운 삼복철에도, 찬바람부는 겨울에도 어려차례 어랑천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시여 무장고국건설에 기여할 귀중한 재부를 마련하고있는 건설자들의 수고를 헤아려주시고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계속 높이 발휘하여 발전소건설을 하루빨리 앞당겨 끝내야 한다고 뜨겁게 교시하신 위대한 장군님.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에 이바지한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을 평양에 불러주시고 그들과 함께 영광의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

생각할수록 련합기업소에 대한 절세위인들의 믿음은 건설자들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사랑과 믿음이 크면 담력과 배짱도 커지는 법이다.

그들은 거대한 흡입탑을 통채로 넘어뜨리기 위한 결사전에 진입하였다.

흡입탑의 밑부분을 산소용접으로 어느 정도 자르고 흡입탑이 넘어질 곳에 충격을 적게 하기 위하여 모래도 깔아놓았다. 모든 준비가 철저하게 된 가운데 흡입탑꼭대기에 바줄이 걸려지고 전인차가 발동을 걸고 바줄을 당기기 시작했다.

모두가 육중한 흡입탑이 기울어지는 모습을 손에 땀을 쥐고 바라보았다. 한초한초…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마침내 흡입탑이 제정된 위치에 정확히 넘어지자 그들은 자기들에게 불가능을 모르는 억센 힘과 용맹, 슬기를 안겨준 고마운 당에 감사를 드리며 목청껏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다.

우리는 대형산소분리기설치를 위한 건축공사의 나날에 있었던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여기에 다 적지 못한다.

하지만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의 마음을 안고 금속공업의 주체화실현에 이바지한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의 자랑찬 위훈은 새로 일떠세운 산소열법용광로와 대형산소분리기의 우렁찬 동음과 더불어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 *

창립 50돐을 맞이한 뜻깊은 지난해에 대형산소분리기설치를 위한 건축공사를 최단기간내에 다그쳐 끝냄으로써 금속공업의 주체화실현에 크게 이바지한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의 투쟁정신과 투쟁기풍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수령의 믿음을 명줄로 간직하고 그 믿음을 지켜 영웅적으로 투쟁할 때 뚫지 못할 난관이 없고 점령 못할 고지가 없다는것이다.

지금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의 전체 로동계급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안겨주신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영예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관철을 위한 공격전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다.

정 영 철

혁명의 새 승리를 향한 장엄한 진군길에서 끊임없는 집단적혁신을 일으켜나가자

근로단체들에서 궐기모임 진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올해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근로단체들의 궐기모임이 8일에 각각 진행되였다.

모임들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리일환동지와 관계부문, 청년동맹, 녀맹일군들, 청년학생들, 녀맹원들이 참가하였다.

청년전위들의 궐기모임

청년공원야외극장에서 진행된 청년전위들의 궐기모임에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1비서 박철민동지의 보고에 이어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로동자 김영권동지, 대성구역 대성남새전문협동농장 농장원 위은심동지, 김일성종합대학 학생 리주혁동지가 결의토론을 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는 청년들의 심장마다에 혁명승리에 대한 철석의 신념을 떡배해주고 만리마속도창조대전에서 새로운 영웅청년신화를 끊임없이 창조해나갈수 있게 하는 전투적기치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 근로단체조직들은 모든 근로자들이 애국주의를 심장에 새기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과학기술을 원동력으로 만리마속도창조대전에서 끊임없는 집단적혁신을 일으켜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든 청년전위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계시여 혁명의 최후승리도, 청년강국의 밝은 미래도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수령옹위의 제일결사대, 당정책결사관철의 제일기수가 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전력, 금속, 화학, 기계, 석탄, 철도운수를 비롯한 인민경제 선행부문의 청년들은 자력자강의 기치를 높이 들고 경제강국건설의 돌격대로서의 전투적위력과 기상을 남김없이 떨쳐나가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경공업과 농업, 수산전선의 청년들이 인민생활향상에서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생산적앙양을 일으키며 중요대상건설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림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애국주의를 심장에 새기고 산림복구전투와 국토환경보호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며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고 전사회적으로 도덕기강을 바로세워나가는데서 선구자, 본보기가 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청년과학자, 기술자들이 자립적경제구조를 완비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풀어나가며 학생청년들은 열심히 학습하여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하는 유능한 혁명인재로 튼튼히 준비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조국보위를 최대의 애국으로, 신성한 의무로 여기고 군사를 성실히 배우며 원쑤들의 침략책동으로부터 사회주의조국과 혁명을 굳건히 수호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전동맹안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5대교양을 참신하게 벌려 모든 조직들을 쇠소리나는 강철의 정예대오로 꾸리며 청년동맹일군들이 청년들을 시대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는 만리마선구자가 되도록 이끌어주는 유능한 청년일군이 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강력하고 믿음직한 핵억제력을 갖춘 존엄높은 김일성, 김정일민족의 영예와 긍지를 안고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일흔돐을 전례없는 청년사업성과로 장식함으로써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명장부대의 위용을 다시한번 힘있게 떨쳐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궐기모임

주체사상탑광장에서 진행된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궐기모임에서는 조선사회주의녀성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장춘실동지의 보고에 이어 평양시녀맹위원회 위원장 김인숙동지, 평천구역 복성1동 초급녀맹위원장 김별동지, 동대원구역 룡천2동 녀맹원 박은옥동지가 결의토론을 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받아안은 온 나라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가슴가슴은 끝없는 감격과 환희로 끓어번지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올해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새해의 장엄한 진군길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정치사상적위력은 우리 국가의 제일국력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위대한 추동력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전동맹을 당과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전일체로 강화발전시킬것이라고 말하였다.

뜻깊은 올해에 녀맹돌격대활동, 누에치기운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대중운동과 좋은일하기운동을 활발히 벌려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참답게 이바지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이 천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과 삼지연군꾸리기, 단천발전소건설, 황해남도물길 2단계공사를 비롯한 나라의 중요대상건설장들마다에서 애국의 한마음을 바쳐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대중체육활동과 군중문화예술활동을 힘있게 벌려 온 나라가 혁명적분위기로 끓어번지게 하며 인민군대를 친혈육의 정으로 원호하고 자녀들을 조국보위초소에 세우는것과 함께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 전사자가족들과 후방가족들의 생활을 따뜻이 돌봐줄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녀맹조직들이 녀맹원들의 앙양된 열의와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더욱 고조시키기 위한 사상전의 된바람을 일으키며 녀맹일군들이 대담하고 과학적인 작전과 능숙한 지휘, 이신작칙의 일본새로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당정책관철의 제일기수가 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뜻깊은 올해에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녀성동맹의 전투력과 위력을 남김없이 떨쳐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들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 격정 토로

위대한 품에 안겨사는 행복동이들

친어버이의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온 나라 아이들을 한품에 안아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은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메히꼬로동당 전국집행위원회 위원 헥또르 끼로스 가르씨아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많은 나라 정부들이 아이들은 나라의 미래이며 그들에 대한 교육사업이 중요하다고 말들은 잘하고있다.

그러나 조선에서처럼 만경대학생소년궁전과 같은 종합적인 과외교양기지들을 일떠세우고 아이들이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꽃피울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정부가 관심을 돌리는 나라는 없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교육시설들을 현대화하는 사업에 국가적인 많은 투자를 돌리도록 사랑의 조치들을 취해주신다.

김정은령도자의 정치방식은 세계의 모든 국가지도자들이 따라배워야 할 모범으로 된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 라몬 히메네스 로페스는 옥류아동병원을 돌아보며 김정은동지의 후대사랑을 절감하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언급하였다.

용장하게 일떠선 병원의 황홀함에 감탄을 금할수 없다.

병원이라기보다는 아이들의 궁전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아이들의 꿈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주며 가꾸어주는 위대한 사랑의 화원에서 조선의 어린이들은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행복만을 누리고있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즐거운 야영의 나날을 보낸 로씨야소년야영단 단장 따찌야나 끌리무크는 태어난 첫날부터 어린이들을 국가가 전적으로 돌봐주는 아이들의 천국인 조선에서 체험한 모든것이 꿈만 같다, 우리는 조선학생들이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왜 그토록 절절하게 부르는지 야영생활을 통하여 절감하게 되였다,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품속에서 만복을 누려가는 조선의 학생소년들이 정말 부럽다고 진정을 토로하였다.

에티오피아 아디스 아바바청년협회 부위원장 게브레셀라씨에 솔로몬 게브루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은동지의 손길아래 조선의 새 세대들은 나라의 기둥감들로 씩씩하게 성장하고있다.

조선방문의 나날 밝고 명랑한 아이들의 모습에서 이 나라의 창창한 래일을 보았다.

미래사랑의 위대한 품에 안겨사는 조선의 어린이들은 행복동이들이다.

평양초등학원, 중등학원을 참관한 홍련일군대표단 단장 김성은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새 세대들을 위해서는 천만금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이 어려와 가슴이 후더워짐을 금할수 없다.

교사, 기숙사, 운동장들을 비롯하여 모든 조건과 환경이 얼마나 훌륭한지 여기서 원아들과 함께 단 하루만이라도 생활하고싶은 생각이 절로 든다.

부모없은 아이들을 위하여 이런 궁궐같은 보금자리를 일떠세운다는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다.

누구든지 우리 조국의 현실을 목격하게 되면 지구상 어느 곳에 밝은 미래가 있는가를 똑똑히 알게 될것이다.

제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 단장 김찬옥은 온혜로운 태양의 해빛은 이역땅에도 따뜻이 비쳐들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반미대결전을 전두에서 령도하시는 그토록 분망하신 속에서도 재일동포자녀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위하여 막대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고계신다.

진정 그이의 따사로운 손길은 총련의 대를 꿋꿋이 계승해나갈수 있게 하는 자양분이다.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는 더 높이 울려퍼지며 강성조선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창창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새 세기 교육혁명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나갈 드높은 열의

신심에 넘쳐 새로운 목표점령에로

교육위원회 일군들과 나눈 이야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새 세기 교육혁명의 원대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당의 주체적인 교육사상과 방침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구현해나가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크나큰 격정속에 받아안은 교육위원회의 일군들과 정무원들이 새 세기 교육혁명의 불길을 더 세차게 일으켜갈 열의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우리는 위원회일군들을 만나 올해 교육사업발전을 위한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지난해에 교육부문에서 전민과학기술인재화실현과 인재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많은 성과들을 이룩하였는데 올해 교육부문에서 힘을 넣어야 할 중요한 사업들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었으면 한다.

부상 오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우선 교원진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학들과 각급 학교들에서 교원들의 자질향상에 큰 힘을 넣도록 하며 교원들을 위한 재교육과 강습을 실속있게 조직진행하고 학위학직소유자대렬을 늘이려고 한다. 또한 중요대학들에서 세계적인 학자들을 많이 키워내며 국제학술토론회들에 대학교원, 연구사들을 적극 참가시키려고 한다. 한편 지방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들에서 전공부문 교원대렬을 강화하기 위하여 졸업생들을 중요대학들의 박사원에 보내여 해당 전문가들을 양성하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우려고 한다.

국장 한성일: 대학들과 각급 학교들에서 정치사상교육을 확고히 앞세우고 모든 학과목교수에서 위대성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5대교양에 선차적인 힘을 넣도록 하겠다. 그리고 학생들이 새롭고 쓸모있는 지식을 빨리 체득하고 활용할수 있게 교육내용의 심용화, 종합화, 현대화를 실현하고 실리있고 우월한 교육방법들을 창조하고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려고 한다.

부상 리관호: 보통교육부문에서도 교원대렬을 튼튼히 꾸리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려고 한다. 교원들을 더 많이 양성하는것과 함께 재교육과 강습, 교원양성부문 대학들에서의 원격교육을 통하여 교원들의 자질향상사업을 근기있게 밀고나가겠다. 현대교육발전추세에 맞게 교육방법을 혁신하기 위하여 모란봉제1중학교를 비롯한 여러 학교들에서 본보기를 창조하고 일반화하는 사업도 본때있게 밀고나가겠다.

국장 김성일: 올해에 제2차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강령을 작성하는 사업이 진행되게 되는데 이것은 제1차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강령을 집행하면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공고히 하고 앞으로 초등 및 중등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는데서 매우 큰 의의를 가진다. 새 의무교육강령에 기초하여 교과서, 참고서집필과 편찬사업이 진행되게 된다. 또한 올해에 평양시의 모든 구역, 군들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수십개의 시, 군들에서 고급중학교 졸업반학생들의 일제시험이 진행되게 되는데 이것은 학생들의 실력평가방법, 시험방법을 개선하고 그 경험을 전국에 일반화하는데서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

기자: 교육체계를 완비하기 위해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게 되는가?

리관호: 보통교육부문에서는 각지에 해당 지역의 경제지리적 특성에 맞게 여러 부문의 기술고급중학교들을 더 내오기 위한 준비를 다그쳐나가게 된다.

오민: 대학들의 사명과 역할에 맞게 고등교육체계를 완비하기 위한 사업도 계속 밀고나가려고 한다.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들에서 수십개의 학과와 전공반을 새로 내오고 새 학년도부터 교육강령을 집행하게 된다. 또한 종합대학과 부문별종합대학들이 해당 부문의 학술중심, 정보중심, 자료봉사중심, 원격교육중심으로서 학술부문이 같은 대학, 학부, 강좌들에 대한 학술일원화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계속 밀고나가도록 하는것과 함께 원격교육을 진행하고있는 대학들에서 원격교육학과들을 늘이기 위한 사업도 적극 벌어지게 된다.

기자: 교육조건과 환경개선을 위해 내세운 목표들은 무엇인가?

오민: 우선 올해에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하여 여러 교육기관들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꾸리기 위한 사업이 적극 추진되게 된다.

중앙재교육강습소의 새 교사건설과 고려성균관, 원산농업종합대학, 리과대학, 함흥화학공업종합대학, 청진광산금속대학들에 교사, 기숙사, 체육관, 도서관 등을 일떠세우는 사업이 진행되게 되며 보통교육부문의 여러 학교건설도 계획되여있다.

한성일: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 리과대학을 비롯한 중요대학들에 첨단기술제품개발 및 생산기지들을 훌륭히 꾸리며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평양기계종합대학, 남포사범대학의 여러 건설대상들도 밀고나가야 한다. 특히 평양교원대학을 본보기로 손색없이 꾸리고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도 전투목표에 반영되여있다.

리관호: 평양제1중학교의 개건공사, 김정숙제1중학교의 체육관건설, 송도사범대학과 선천교원대학을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 등 해당 교육기관들의 방대한 건설 및 개건공사를 힘있게 밀고나가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다.

김성일: 당의 령도업적이 깃든 학교들을 모든 면에서 본보기단위로 만들기 위한 사업과 모든 시, 군들에서 본보기학교를 창조하기 위한 사업도 계속 밀고나가려고 한다. 특히 모든 군들의 농촌리에 있는 학교들중에서 한개이상의 본보기학교를 창조하고 일반화하는 사업을 통하여 중등교육에서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결정적으로 없애기 위한 사업들이 힘있게 벌어지게 된다. 또한 각 시, 군들에 어린이교통공원을 건설하는 사업도 결속해야 한다.

오민: 이밖에도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관리를 개선하며 교육단위별, 지역별로 사회주의경쟁열의를 더욱 고조시켜나가겠다.

사업의 성과여부는 우리 일군들의 각오와 일본새, 능숙한 작전과 지휘에 달려있다.

지금 위원회안의 모든 일군들과 정무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원대한 구상을 받들어 교육강국, 인재강국건설에서 전환을 일으킬 드높은 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공 로 혁

새 분야를 개척해나가는 탐구열풍

교육연구원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받아안은 교육연구원의 일군들과 연구사들모두가 새 세기 교육혁명수행에서 자신들이 맡고있는 사명감으로 하여 격동된 심정을 금치 못하였다.

지난해 교육과학연구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돌이켜보며 이들은 더 높이, 더 빨리 달려갈 새해의 결의를 가슴마다에 뜨겁게 새기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교육과학연구부문에서는 주체적립장에서 교육조종학을 비롯한 교육과학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며 교육을 과학화, 현대화하고 교육의 질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우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적극 풀어나가야 합니다.》

사회주의교육테제발표 40돐이 되는 지난해 교육연구원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평양초등학원에서 여러 과목수업들의 본보기를 창조하고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 교육과학의 새로운 분야들을 개척하기 위한 연구, 교육자들을 위한 참고서집필, 교전물과 다매체전자물체작 등 자랑할만 한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그 기세, 그 열정으로 올해에도 높이 세운 전투목표들을 기어이 실현해갈 일념으로 일군들과 연구사들의 심장은 세차게 높뛰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주체적인 교육사상과 업적을 정립체계화하고 집대성한 도서집필계획, 우리 나라 보통교육부문의 교육강령발전과정에 대한 연구계획 등은 당의 령도업적을 더욱 빛내여가기 위한 중요한 전투목표들이다.

실리있고 우월한 교육방법들을 끊임없이 창조하고 도입하기 위한 연구목표들도 좋다. 교실들을 다기능화, 정보화하는데서 나서는 실천적문제들에 대한 연구사업계획들도 주목을 끌고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교육과학의 새 분야들을 개척하고 교육과학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앞서나가려는 일군들과 연구사들의 야심만만한 투지와 배짱은 이들이 세운 높은 목표들에 그대로 반영되여있다.

우리 당의 주체적인 교육사상에 기초한 과학적인 리론이 없이는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옳게 해결할수 없으며 교육과학연구에서도 더 큰 전진을 기대할수 없다.

이러한 확고한 관점밑에 연구원에서는 모든 교육과학연구의 기초로 되는 리론연구과제들을 제기하고 이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짜고들고있다.

지난해 교육조종리론, 교육전략리론, 교육예측리론연구에서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올해에는 교등교육리론, 교육계획리론 등 방대한 량의 리론연구과제들을 수행하는데 달라붙은 고등 및 사범교육연구소의 연구사들은 발은 자기 땅에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며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을 내놓기 위해 사색과 탐구를 기울이고있다.

인재류형리론에 대한 연구계획을 보아도 인재류형과 양성목표를 정확히 세우고 그에 따르는 교수내용을 어떻게 구성하겠는가, 교원대렬을 어떻게 꾸리겠는가 등 실천적문제들에 대한 리론적기초를 마련해줌으로써 교육사업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연구과제의 하나이다. 여기에는 주체적인 교육사상과 리론을 확고히 틀어쥐고 교육과학을 우리 식으로 개척하며 발전시키려는 이곳 일군들과 연구사들의 드높은 신심과 창조적인 사업태도, 혁신적인 일본새가 비껴있다.

교육과학의 발전을 떠나서 교육혁명의 성과를 기대할수 없다.

교육과학을 발전시키는데 힘을 넣어 나라의 전반적교육을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 확고히 올려세울데 대한 당의 뜻대로 우리의 교육을 더 높은 단계에로 비약시키기 위해 비상한 각오를 안고 떨쳐나선 연구집단의 탐구열풍이 온 연구원에 차넘치고있다.

본사기자

전투장에 나래치는 혁신의 기상

교육도서인쇄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피끓는 심장마다에 새겨안은 교육도서인쇄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교과서생산전투에서 혁신을 창조하며 새해의 첫걸음을 힘차게 내짚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력자강의 정신을 가져야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뚫고나갈수 있으며 최악의 조건에서도 최상의 성과를 이룩할수 있습니다.》

과학교육의 해인 지난해 12월까지 수백만부의 교과서와 교수참고서를 생산하는 커다란 성과를 거둔 교육도서인쇄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승리의 신심드높이 새해 첫 전투에 진입하였다.

후대들을 위해 교과서생산용종이보장대책을 세워주시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거룩한 자욱이 새겨진 공장을 령도업적단위답게 최상의 수준에서 현대화하기 위한 온갖 조치를 다 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기어이 높은 생산실적으로 보답해갈 애국충정의 열의속에 지난 한해가 가슴벅차게 흘러갔다.

사실 지난해는 그전시기보다 생산조건이 더욱 어려웠다.

공장을 현대화하기 위한 방대한 공사를 내미는것과 동시에 교과서생산전투를 벌리자니 곱절로 힘겨웠다. 그렇다고 때을 놓고 주저앉을수 없었다.

시급히 교과서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는 방도를 찾아야 했다.

당의 뜻대로 자력자강의 동력으로 난관을 뚫고나갈 진지한 토론들이 거듭되고 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발동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졌다.

과학기술을 틀어쥐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확고한 관점밑에 지배인은 공장의 기술집단을 발동하여 교과서생산에서 제일 걸린 문제를 과학기술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생산을 몇배로 높일수 있도록 하는데 성공하였다.

초지작업반에서는 초지기와 절단기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정상가동시켜 생산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걸린 문제들이 과학기술의 힘으로 척척 풀려나가자 종업원들은 더욱 분발하여 코대로 철야전투를 벌리며 교과서생산에서 커다란 혁신을 창조해나갔다. 그리하여 올해 새 학년도개교에 필요한 교과서생산에서는 전례없는 성과가 일어났다.

올해에도 아름찬 일감이 이들을 기다리고있다.

공장의 현대화사업도 다그쳐 끝내야 하고 새로 나온 기술고급중학교용교과서생산도 다음달까지 결속해야 한다.

당조직에서는 그 방도를 대중의 정신력을 총발동시키는데서 찾고 일군들이 직접 틀앉는 작업현장들을 맡고 내려가 정치사업을 드세차게 벌리도록 하고있다. 공장구내와 전투현장들에 힘있는 구호와 표어들, 전투속보들, 사회주의경쟁도표들이 나붙고 공장기동예술선동대활동이 맹렬히 벌어지고있다. 이와 함께 작업반별로, 직장별로 교과서생산의 질과 속도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열풍이 세차게 일어번지고있다.

일군들은 최대한 증산하고 절약하기 위해 전투조직과 지휘를 짜고드는 한편 불리한 겨울철에도 종업원들이 높은 생산실적을 내도록 현장의 작업조건보장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교과서생산전투장에는 결코 종업원들만 있지 않다.

새 학년도개교전에 미나면 북방의 산골아이들에게까지 교과서들이 제때에 가닿게 하자면 자기들도 응당 한몫해야 한다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바쁜 일손들을 도우며 애국의 마음을 바쳐가고있다.

진정 그 어느 곳에 가보아도 줄지어 쏟아져나오는 교과서들과 더불어 공장의 약동하는 승결, 혁신의 기상을 가슴후덥게 느낄수 있었다.

우리는 믿어의심치 않았다. 질좋은 교과서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하여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활짝 꽃피워가려는 뜨거운 지향과 열망으로 맡아오른 영광의 일터에서 올해에도 더욱 눈부신 성과가 이룩되리라는것을.

본사기자 김명훈

빈틈없는 작전, 충천한 기세

순천시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올해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순천시에서 교육사업발전을 위한 작전을 면밀하게 세우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라의 문명은 교육수준에 의하여 담보되며 우리 국가의 미래는 교육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순천시의 일군들은 무엇보다 먼저 교육과학의 해인 지난해에 거둔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교원진영을 강화하고 현대교육발전추세에 맞게 교수내용과 방법을 혁신하기 위한 단계별목표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세우고있다.

지난해 시에서는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되는데 맞게 수많은 학교들을 새로 일떠세우거나 증축 및 개건공사를 진행하여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하는데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당 제7차대회가 열린 해에 룡악초급중학교, 봉우고급중학교, 순천초급중학교 2호교사 등 여러 학교들과 교사들을 새로 일떠세운데 이어 이들은 지난해에도 시자체의 힘으로 내남고급중학교, 서문소학교 3호교사, 직동기술고급중학교 등 여러 학교들의 건설과 증축 및 개건공사를 끝내였다.

이 나날 교육사업의 물질기술적토대만 강화된것이 아니라 일군들의 당정책결사관철정신과 자력자강의 혁명정신이 더욱 백배해진것은 참으로 자랑할만 한 성과이다.

시의 책임일군부터가 벽돌생산기지를 꾸리는 사업을 수시로 료해하고 힘있게 밀어주었으며 모든 일군들이 학교건설과 개건에 필요한 자재와 교구비품을 마련하는데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게 되였다.

새 세기 교육혁명수행의 앞장에서 내딛힌 이들의 자신심은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는데서 거둔 성과에서만 생겨나는것이 아니다.

교원진영을 강화하고 교수내용과 방법을 혁신하는데서도 이곳 일군들은 적지 않은 경험을 가지고있다.

지난해에 열린 전국적인 교수경연에서 6명의 교원들이 특등과 1등을 쟁취한것만 보아도 그에 대해 잘 알수 있다.

일군들은 교수경연에 참가하기 위한 준비과정이 곧 시안의 전체 교원들의 교수능력과 자질을 당이 바라는 높이에로 향상시키는 과정으로 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결과 학교별, 교종별, 일군별로 진행된 교수경연준비열풍속에서 심리있고 우월한 교수방법들이 수많이 나오게 되였다. 그리하여 도를 대표하여 나간 시의 교원들이 단연 우승의 영예를 지니게 되였다.

이렇듯 자랑찬 성과에 토대하여 시의 일군들은 지금 본보기학교건설과 여러 학교들의 개건보수공사를 최단기간내에 끝내며 태양에네르기에 의한 원격재교육체계의 정상운영준비를 다그치는것과 함께 학교들에서 교원들의 자질을 더욱 높이기 위한 야심만만한 계획들을 내세우고 그 실천을 위한 사업을 힘있게 전개하고있다.

본사기자 리 건

교육의 정보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고있다. — 재교육강습소에서 — 본사기자 김종훈 찍음

직업적혁명가의 영예를 안고

벽동군 송삼고급중학교 교원 최성옥동무는 처녀시절부터 지금까지 직업적혁명가라는 높은 책임감을 안고 당이 맡겨준 교단을 지켜 후대교육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고있다.

그는 교원의 자질이자 학생들의 실력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새로운 교수방법들을 연구하고 교수에 구현하기 위해 언제나 피타는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그가 함구한 교수교양방법들도 수없이 많다.

학생들에게 하나를 가르쳐도 알기 쉽게 배워주기 위해 심혈을 쏟아붓고 실력이 낮은 학생들을 위해 밤길도 많이 걸었다. 그리고 학생들의 옷차림과 언어, 행동에 이르기까지 그들에 대한 교양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는 참된 교육자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고 그는 자질향상을 위한 올해의 목표를 높이 세웠다.

자신의 실력을 두고 만족을 모르는 그는 새해 첫 전투부터 꾸준히 학습하면서 새 교수방법탐구에 정력을 기울여가고있다.

그는 올해의 교육사업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룩하여 우리 당의 교육중시사상을 실천으로 받들어갈 드높은 신심에 넘쳐있다.

다심한 어머니심정으로 교육사업에 진심을 바쳐가는 그를 두고 학부형들모두가 《우리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존경하고있다.

로농통신원 전준갑

학생소년들의 설맞이공연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의 노래》 련일 진행

학생소년들의 주체107(2018)년 설맞이공연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의 노래》가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 련일 진행되고있다.

공연장소는 우리 당의 품속에서 재능의 꿈을 활짝 꽃피워가는 새 세대들의 기쁨과 랑만에 넘친 공연을 보기 위해 모여온 관람자들로 흥성이고있다.

평양시내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 해외동포들, 외국손님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시장 노래와 무용 《경애하는 아버지원수님께 영광드려요》, 6중창과 합창 《최고야》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소합창 《김일성대원수님 고맙습니다》, 남녀창과 방창 《더 높이 부르자 김정일장군의 노래》, 무용과 노래 《원수님 먼길 다녀오셨습니다》, 민족기악과 노래 《웃음넘친 내 나라의 자랑이야》, 동화노래극 《꽃동산에서 세운 발전소》를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우시고 후대들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을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어머니당의 품속에서 만복을 누려가는 온 나라 학생소년들의 행복한 모습을 감명깊게 구가하였다.

녀중창 《원수님 밝은 웃음》, 녀독창 《딱 한번만》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열과 정으로 온 나라 아이들을 한품에 안아 희망을 꽃피워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한없이 숭고한 후대사랑의 세계를 가슴깊이 절감하였다.

지덕체의 통마라고 세계를 앞서나가는 과학기술강국의 주인공, 강성조선의 유능한 혁명인재, 기둥감으로 억세게 자라나는 학생소년들의 긍지가 차넘치는 과학환상무용 《꼬마우주탐험대》, 시와 무용 《소년근위대 앞으로》 등의 종목들이 련이어 무대에 올랐다.

공연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전인민적인 총공세의 앞장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킴으로써 우리 학생소년들에게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을 마련해주는 천하제일강국을 이 땅우에 반드시 일떠세울 결의를 굳게 가다듬었다.

종장 합창 《김정은원수님 위하여 항상준비》, 체육무용과 합창 《얼마나 멋질가 우리의 새해》로 끝난 공연은 태양의 축복속에 희망의 나래를 활짝 펴고 사회주의조선의 믿음직한 억군으로 억세게 준비해나가는 학생소년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훌륭히 보여준것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첫기 겨울철야영 시작

어머니당의 은혜로운 손길아래 후대들의 밝고 명랑한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내 조국의 힘찬 동음으로 끝없이 울려퍼지는 속에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학생소년들의 첫기 겨울철야영이 시작되였다.

후대들을 위해서는 억만금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마련해주신 직통렬차를 타고 동해명승의 밋쟁이궁전에 도착한 야영생들은 커다란 기쁨에 넘쳐있었다.

그들은 먼저 야영소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첫기 겨울철야영시작모임이 8일에 진행되였다.

관계부문, 야영소일군들과 교직원들, 야영생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야영시작을 알리는 신호나팔소리에 이어 《소년단행진곡》이 울리는 가운데 야영기발이 게양되였다.

모임에서는 보고와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든 일군들과 교직원들, 야영생들이 야영소에 깃든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깊이 체득하고 대를 이어 빛내여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교직원들이 학생소년들의 조직성과 자립성, 집단주의를 키우는데 중심을 두고 야영활동을 조직하며 야영생들의 생활을 친혈육의 정으로 잘 돌봐주어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야영생들이 당의 은정을 자나깨나 잊지 말고 고상한 도덕품성과 집단주의정신을 지니며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더욱 공고히 다지면서 체력을 튼튼히 단련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이 끝난 다음 야영생들의 분렬행진이 있었다.

야영기간 학생소년들은 마식령스키장에서 스키, 스케트, 썰매타기 등으로 즐겁고 유쾌한 나날을 보내게 된다.

【조선중앙통신】

절세위인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을 적극 받들어나가겠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 담화 발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커다란 격정속에 받아안은 차상보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이 3일 《절세위인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을 적극 받들어나가겠다》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애국애족의 호소와 화고한 통일의지가 구절구절마다에 뜨겁게 어려있는 새해신년사를 받아안은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전체 재중조선인들은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데 한몸 다 바쳐나갈 열의로 가슴 불태우고있다고 지적하였다.

담화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는 민족분렬과 동족대결의 가슴아픈 력사를 하루빨리 끝장내고 민족자주의 기치높이 나라의 통일과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성취하며 민족번영의 찬란한 새시대를 열어가시려는 숭고한 뜻과 철의 의지가 담겨져있다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심으로써 해내외의 온 겨레를 거족적인 통일진군길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고 담화는 지적하였다.

담화는 북남관계개선은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수 없는것만큼 남조선당국자들은 무엇보다 동족을 목표로 미국과 야합하여 벌리는 무모한 핵전쟁연습소동부터 그만두어야 하며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환경을 마련하는데로 발길을 돌려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지금이야말로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는 조선사람이라면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사상과 정견, 신앙의 차이에 관계없이 모두가 북남대결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관계개선에서 근본적인 변혁을 가져오기 위한 력사의 장엄한 흐름에 적극 합류해나서야 할 때이라고 담화는 주장하였다.

담화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전체 재중조선공민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밝혀주신 애국애족의 위대한 호소를 높이 받들고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새 력사를 써나가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북유럽 진보정당 및 친선단체들

경축모임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6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6돐,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 100돐에 즈음하여 북유럽 진보정당 및 친선단체들의 경축모임이 지난해 12월 23일 스웨덴에 스톡홀름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장소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함께 계시는 영상미술작품이 모셔져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임장소에 모셔져있었다.

또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자랑찬 성과들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여있었다.

모임에는 스웨덴에의 공산당, 스웨덴에조선친선협회, 스웨덴에주재사상연구소조, 단마르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 핀란드조선협회를 비롯한 북유럽 진보정당, 주재사상연구조직,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단체 인사들과 성원들, 스웨덴에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먼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함께 계시는 영상미술작품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숭고한 경의를 드리였다.

모임에서는 발언들이 있었다.

스웨덴에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은 협회가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하는 련대성활동을 활발히 벌린데 대하여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전대미문의 압박과 제재책동에 자기의 정치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것으로 단호히 맞서싸우고있다.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사회주의강국건설에 떨쳐나선 조선인민의 투쟁모습은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 커다란 고무를 안겨주고있다.

조선의 벗들은 조선인민이 거두고있는 성과들을 기쁜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그들에게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보내고있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되였다.

새로운 전략국가의 등장에 당황망조한 패배자들의 궤변

얼마전 미국대통령 트럼프가 백악관의 공식웨브싸이트를 통하여 미국시민들과 본토에 대한 위협제거를 위해 조선에 대한 제재와 압력을 높은 수준에서 실현한것이 임기 첫해의 《외교사업성과》라고 떠들었다. 미국무장관 렉스틸슨도 신문 《뉴욕 타임스》에 투고한 《우리의 외교를 자망한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같은 수작을 늘어놓았다. 그러면서 미국인들은 세계평화와 안전보장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긍지스럽게 여겨야 한다.》느니, 조선을 핵포기를 위한 대화에 나오도록 할수 있는 방도는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는것뿐이라느니 하고 횡설수설하였다.

가관이다. 미국의 정치와 외교를 총괄한다고 하는자들이 창피한줄도 모르고 떠벌여댄 《외교적성과》라명은 반인륜적인 불법무법의 제재봉쇄책동으로 우리 나라를 전략국가로 급부상시킨 패배자들의 얼빠진 궤변이다.

물론 트럼프의 정신병적인 광대에 장단을 맞춰 강권과 전횡의 극치를 이룬 미국의 마피아식외교에 기가 질려 큰 덩지가 아깝게 엎드려기기를 한 나라들도 있다.

허나 그것은 사실상 외교가 아니다. 몽둥이와 돈주머니를 흔들어대는 짬패두목과 그 앞에 체면도 자존심도 다 팽개치고 굴복한 나약하고 리기적인 무기군들이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원칙들을 공공연히 무시하고 벌려놓은 히스테리적인 광대극이다. 그속에서 한 국가와 인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말살할것을 노린 극악무도한 반공화국《제재결의》들이 퇴적장의 오물처럼 쏟아져나왔다.

카나다세계화연구소는 홈페지에 게재한 기사에서 대조선《제재결의》들은 너무도 가혹하고 비인간적이여서 히틀러의 악법들과만 비교할수 있으며 이러한 제재가해자들은 살인모의행위로 유죄선고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트럼프패가 미국시민들과 본토에 대한 위협제거니, 《미국인들의 긍지》니 하고 떡설해댄것은 완전한 현실도피이고 자기기만이며 민심우롱이다.

미행정부가 지난해에 한 일이란 본토안전과 자국민들의 운명을 도박밑천으로 내대고 전대미문의 반공화국압살소동에 광분함으로써 미국본토전역을 우리의 핵타격사정권안에 완전히 놓이게 한것밖에 없다.

미국 하와이주에서 랭전이래 처음으로 《탄도로케트공격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대피훈련이 벌어지게 만든것이 그리도 자랑스러운가.

트럼프행정부가 자국민들에게 가져다준 《긍지》란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유린하려든 대가로 미국인들이 저축했던 돈을 털어내여 핵방공호를 경쟁적으로 사들이며 발편잠을 못 자게 만든것뿐이다.

미국이 조선의 핵포기를 망상하며 《국제적고립》을 운운한것은 실패한 외교미숙아, 패배자들의 자체위안으로서 더우기 조소를 자아낸다.

미국이 지난 온 한해 미친듯이 벌린 반공화국제재압박소동이 어떤 결과를 빚어냈는가. 자주적인민의 투쟁력을 총폭발시키고 우리 공화국을 세계적인 핵강국으로 떠밀었다.

우리 국가는 단 한해동안에 대륙간탄도로케트를 위시한 각종 현운반수단들과 함께 초강력열핵무기시험도 단행함으로써 강력하고 믿음직한 전쟁억제력을 보유하였다. 세계가 공인하는 전략국가로서의 우리 공화국의 지위는 그 어떤 힘으로도, 그 무엇으로써도 되돌릴수 없다.

이것이 주체조선이 세계앞에 당당히 자부하는 지난해의 특출한 성과이다.

국제사회는 그 어떤 《제재결의》도 자주의 기치, 병진의 기치높이 틀진하는 조선앞에서는 휴지장에 불과하다는것을 더욱 똑똑히 깨달았다.

미국 케이토연구소 국방 및 대외정책분석가는 국제관계잡지 《내슈널 인터레스트》에 게재한 론평 《미국의 대조선전략이 실패한 리유》에서 트럼프행정부가 조선의 비핵화를 노린 강박전략을 포기하는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충고하였다. 도이췰란드신문 《디 벨트》에는 조선에 더는 제재할것이 없으며 이제는 제재항목이 바닥이 났다고 조소하는 글이 실렸다.

우리에 대한 제재와 압박실행을 《외교적성과》로 떠들어대는 트럼프패거리들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각은 이렇다.

최근 모략파 남조의 능수인 미중앙정보국마저도 조선이 핵무기계획을 포기하게 만들 제재방도가 없다는 평가서를 내지 않으면 안된것이 현실이다.

트럼프는 임기 첫해에 벌써 가장 실패한 최악의 대통령이 되였다.

류례없는 외교적실패를 《외교적성과》로 자랑할수밖에 없는 미국정객들의 처지가 참으로 궁색하다.

이런자들을 가리켜 세인은 흔히 돈 끼호테라고 한다.

시대착오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미국은 평화수호의 강력한 보검을 틀어쥔 우리 국가가 올해에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어떤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전인민적인 총공세로 마지막발악을 하는 적대세력들의 도전을 보기 좋게 짓부시고 영웅조선의 강용한 기상을 더 높이 떨치려는 우리 천만군민의 기세는 충천하다.

리 효 진

민주꽁고로동자당

평양선언에 서명

민주꽁고로동자당이 력사적인 평양선언 《사회주의위업을 옹호하고 전진시키자》에 서명하였다.

2일에 진행된 당긴급특별회의에서는 평양선언랑독에 이어 전국위원장 스티브 음비까이 마뷰뭐가 서명하였다.

전국위원장 특별서기는 우리 나라 대표부에 서명봉전과 함께 평양선언에 서명한것은 김정은위원장동지께서 새해에도 진강하시여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수행에서 보다 큰 승리를 이룩하실것을 바라는 민주꽁고로동자당의 축원의 인사와 그이의 력사적인 신년사에 대한 지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두 당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담겨져있다고 한 전국위원장의 말을 전달하였다.

상전의 막후조종에 따른 불량배적망동

지난해말 이스라엘외무상이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가 이스라엘을 조직적으로 공격하고있으며 저들의 땅을 유태인의 력사로부터 분리시키려 한다고 떠벌이면서 기구에서 탈퇴한다는 편지를 기구총국장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31일부터 이스라엘의 유네스코탈퇴는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국제사회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저들의 비범적인 령토강점야망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서슴지 않겠다는 불량배적망동이다.

어찌 보면 기구내에서 더이상 머리를 들고다닐 체면도 명분도 없는 령토강탈자의 궁색한 처지를 모면하기 위한 객기에 불과하다고 말할수 있다.

이스라엘은 지난 수년간 응당 물어야 할 기구회비마저 물지 않아 기구총회때마다 결의권을 가지지 못하였다. 더우기 강점한 아랍령토에서의 문화재보호문제와 관련해서는 물리우다싶이 해왔다. 무드스의 사원문제를 놓고 지난해 7월에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41차회의에서는 이 사원뿐아니라 헤브론의 옛 도시지구도 팔레스티나의 유산으로 등록한다는 결정이 채택되였다. 이 사실만 보아도 이스라엘이 국제무대에서 어느 정도로 고립되고있는가를 잘 알수 있다.

때문에 이스라엘이 탈퇴이격으로 유네스코에서 탈퇴하기로 한것은 별로 놀라운 일도, 큰 문제도 아니다. 그러나 그 배경에 대해서는 까밝혀볼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의 유네스코탈퇴결정은 저들의 리기적목적을 위해서라면 국제질서는 물론 세계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것도 서슴지 않는 현 미행정부의 부추김과 막후조종에 따른것이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해 기후변화에 관한 빠리협정을 불공정한 협정으로 힐뜯으며 탈퇴를 선포한 미국은 련이어 유네스코에서도 탈퇴한다는 결정을 발표하여 국제사회의 비난과 조소를 자아냈다.

그러나 유독 이스라엘만은 미국의 유네스코탈퇴결정을 《용기있고 도력적인 결정》으로 극구 찬양하면서 맞장구를 쳤다.

또한 미국이 무드스를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이스라엘주재 미국대사관을 텔 아비브로부터 무드스로 옮긴다는것을 발표하자 온 세계가 들고일어났지만 이스라엘은 감지덕지하여 그것을 극구 환영하였다.

이번에 이스라엘은 미국이 이미 짜준 각본대로 평화롭고 문명한 세계건설을 사명으로 하는 유네스코에서 탈퇴하는것으로 상전의 《은총》에 보답한것이다.

미국은 이런 식으로 모든 추종세력들이 자기의 뒤를 따르도록 함으로써 자기의 불량배적인 행위를 정당화하고 패권야망을 기어이 실현해보려 하고있다.

극단적인 《미국우선주의》를 제창하면서 국제적인 협약들과 기구들에서의 련이은 탈퇴로 세계를 불안과 혼란속에 몰아넣다 못해 자기의 망동에 추종국들도 편승해나서도록 꼬드기는 미국이야말로 오늘날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 파괴하는 주범이다.

이런 미국을 그대로 두고서는 인류공동의 평화적발전도, 지속적인 미래도 기대하기 어렵다.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깡패행위를 절대로 용납치 않으려는 전결한 립장을 표시하며 이에 단호히 맞서나가고있는것은 당연하다.

미국은 똑바로 알아야 한다. 독선과 전횡을 일삼을수록 국제적고립밖에 차례질것이 없다. 이스라엘도 그와 같은 운명을 면치 못할것이다.

안 철 권

통합놀음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

남조선에서 《국민의 당》과 《바른정당》사이의 통합을 둘러싼 각 정치세력들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해말 《국민의 당》은 소속당원들을 대상으로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을 묻는 전당원투표를 진행하였다. 《국민의 당》소속 당원의 불과 4분의 1정도가 참가한 이 투표에서 통합찬성의견이 과반수를 차지하자 안철수를 우두머리로 하는 통합파들은 그것을 명분으로 본격적인 통합추진에 나서고있다. 반면에 전라도파를 비롯한 통합반대파들은 그에 더욱 거세게 저항해나서고있다.

얼마전 《바른정당》의 지역위원장추천모임에 참가한 《국민의 당》 대표 안철수는 《바른정당》 대표 류승민과 함께 두 당사이의 통합에 대해 모의한데 이어 《당을 살리기 위한것》이라는 구실을 내대면서 어떻게 하나 통합을 성사시킬 기도를 내비쳤다. 그리고 《스스로 심판받는 길을 택한다.》고 하면서 통합반대파들에 대한 압박도 강화하였다.

《국민의 당》과 통합하여 살길을 열어보려 하고있는 《바른정당》패거리들도 《국민의 당》의 전당원투표결과가 발표되자 《환영한다.》느니, 《통합렬차에 후진은 없다.》느니 하고 패제를 올리면서 곧 《통합추진협의체》를 내올것이라고 떠들어대고있다.

안철수패들이 반대세력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바른정당》과의 공식통합절차에 나선 가운데 두 당 의원들의 모임인 《국민통합포럼》것들은 지난 4일 토론회라는것을 열고 통합정당의 정책을 작성하기 위한 놀음을 벌리였다. 여기에서 두 당의 의원나부랭이들은 서로의 당강령이 《사실상 똑같다.》느니, 두 대표의 《대북관도 거의 차이가 없다.》느니 하면서 통합을 적극 부채질하였다.

반면에 《국민의 당》의 통합반대파들은 전당원투표의 최종투표률이 전체 당원수의 23%밖에 안되고 투표에서 나타난 통합반대의견까지 고려하면 통합에 대한 찬성률은 고작 17%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완강히 반대해나서고있다. 대표적인 통합반대파인물들인 박지원, 정동영을 비롯한 18명의 의원들은 안철수를 퇴진시키기 위한 모임까지 결성하는 등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막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하고있다.

통합반대파들은 자신들의 목적이 통합을 저지시키는데 있지만 통합파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계속 추진한다면 명백하게 갈라질것이다. 두 당이 통합하는것은 《국민의 당》과 《자유한국당》이 통합하는것과 같다고 하면서 집단적으로 탈당하여 새로운 정당을 내올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그들은 안철수가 통합을 끝내 강행할 경우 신당창당추진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남조선언론들은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발하여 《국민의 당》에서 떨어져나올 의원들이 《국회》교섭단체기준이 되는 20명이상에 달할것이라고 보도하고있다.

이러한 속에 《국민의 당》의 통합반대파들이 안철수를 통합에로 부추기는 《바른정당》의 주요인물들을 비난하고 여기에 류승민을 비롯한 《바른정당》패거리들이 맞불질을 해대면서 사태는 더욱 복잡하게 번져지고있다.

민심은 안중에도 없이 당리당략을 위해 정치적야합과 정쟁에 열을 올리는 《국민의 당》과 《바른정당》의 사이비정객들의 추태는 남조선 각계의 비난과 환멸만을 자아내고있다.

본사기자 리 성 호

남조선과 여러 나라 지식인들

일본군성노예문제의 옳바른 해결을 주장

남조선인터네트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남조선과 세계 여러 나라의 지식인들로 조직된 《일본군위안부연구회》가 3일 일본군성노예문제의 옳바른 해결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2015년 12월에 있은 남조선과 일본의 일본군성노예문제《합의》는 문제의 본질을 부정하고 그 해결을 위한 노력의 력사를 유린한것이였다고 지적하였다.

지난해 12월 27일 성노예문제《합의》가 절차와 내용모두가 잘못된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성명은 밝혔다.

박근혜《정부》는 일본군성노예문제의 본질과 력사에 대한 리해가 없이 어설픈 외교카드를 일본에 내밀었다가 궁지에 몰려 굴욕적인 《합의》를 덥석 받아버렸다고 성명은 단죄하였다.

성명은 박근혜가 피해자들의 목소리조차 무시하고 측근을 동원하여 밀실교섭으로 성노예문제를 《합의》하였다고 단죄하였다.

일본은 미국을 등에 업고 무능한 박근혜《정부》를 몰아붙여 일본군성노예문제를 묻어버렸다고 성명은 폭로하였다.

성명은 일본당국이 성노예범죄에 대한 강제성인정과 배상, 진상규명, 력사교육, 책임자처벌도 모두 거부하였다고 규탄하였다.

성노예문제《합의》는 문제의 본질과 력사에 무지한 박근혜《정부》의 무능과 일본군성노예문제를 영원히 묻어버리려는 일본정부의 뒤틀린 야망이 결합된 야합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명은 성토하였다.

성명은 성노예문제의 본질과 력사를 부정할뿐아니라 문제자체를 영원히 매장하려는 일본과의 굴욕《합의》는 성노예문제의 해결책으로 될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2015년의 굴욕《합의》는 이미 없다고 하면서 전제가 잘못된 《합의》를 보완, 수정할수 없으며 잘못된 전제를 내포하고있는 재협상은 무의미하다고 성명은 지적하였다.

성명은 남조선당국이 일본군성노예범죄에 대해 일본정부에 법적책임을 물어야 하며 일본은 법적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위협공갈과 모략으로 조작해낸 범죄적조약

133년전 일제는 갖은 모략과 위협공갈로 우리 나라에 날강도적인 《한성조약》을 강요하였다. 그날이 바로 1월 9일이다.

일제가 조선을 상대로 조작해낸 모든 조약들이 그러하듯이 《한성조약》 역시 우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일본의 조선침략을 더욱 강화할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또 하나의 불평등조약이였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바와 같이 19세기 후반기에 들어와 우리 나라에 대한 일제의 침략책동은 보다 집요하고 악랄한 성격을 띠고 감행되였다. 그것은 이시기 다른 렬강들도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자리잡고있고 자원이 풍부한 우리 나라에 눈독을 들이고 저마끔 자기의 지배권을 확립하는데 경쟁적으로 달라붙었기때문이다. 《정한론》을 제창하며 조선을 병합하려는 야망을 품고있던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에 위구심을 품고 어떻게 해서나 조선침략의 돌파구를 먼저 열어제끼려고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한편 그 당시 우리 나라에서는 김옥균을 비롯한 개화파세력에 의하여 부르죠아개혁운동이 성숙되여가고있었다. 개화파세력은 부르죠아개혁운동을 통해 조선의 근대화를 실현할것을 목적하고있었다.

일제가 이것을 탈카와할리 만무하였다. 개화파세력이 득세하는 경우 조선을 독점적식민지로 만들려던 저들의 침략계획이 물거품으로 될수 있었던것이다.

일제는 개화파를 상대로 겉으로는 조선에서의 부르죠아개혁을 지지하는듯이 노죽을 부렸지만 뒤에서는 이를 파탄시키기 위해 음으로양으로 책동하는 비렬한 랑면술책에 매달렸다.

일제는 개화파의 환심을 사기 위해 김옥균일행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성대한 환영회》까지 차려주었으며 《국채위임장》만 가져오면 상당한 액수의 개혁자금도 차관으로 줄수 있다는 감언리설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김옥균이 교섭끝에 《국채위임장》을 마련해가지고오자 국왕의 수표가 위조된것이라는 터무니없는 구실을 붙여 약속된 자금을 단 한푼도 내주지 않았다. 또한 1개 대대분의 무기를 주겠다고 해놓고도 그것을 리행하지 않았으며 그나마 주었다는 무기도 고장나거나 녹이 쓸어 쓰지 못할 총들이였다.

우리 나라에 들어온 청나라군대에 가까운 시일안에 조선봉건정부안에서 어떤 큰 사변이 일어날수 있다는것을 교활한 방법으로 암시해준것도 바로 일본군국주의자들이였다. 1884년 부르죠아개혁을 위한 갑신정변이 일어났을 때에는 개화파를 도와 왕궁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팽개치고 결정적인 순간에 왕궁호위에 동원되였던 저들의 군대를 철수시켰다. 일제의 배신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갑신정변은 3일천하로 끝나고 말았다.

정변실패후 일제의 철면피성은 어지없이 드러났다. 정변시 일본공사가 도주하면서 저들의 공사관을 불살라버린 책임을 조선봉건정부에 넘겨씌우고 이를 구실로 조선에 대한 침략정책을 더욱 추진시킬 모의를 꾸몄다. 그리고 《조선사람들이 공사관을 습격방화하였다.》, 《일본거류민들이 피살되였다.》라고 떠벌이면서 1885년 1월 2개 대대의 침략무력과 7척의 군함을 인천항에 들이밀었다.

일제는 조선봉건정부에 갑신정변당시 저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날강도적인 조약의 체결을 강요하였다. 《한성조약》은 이렇게 날조되였다.

력사적사실이 보여주다싶이 《한성조약》은 그 체결과정이 강압적인것으로 하여 국제법적가치를 전혀 상실한 협잡문서에 지나지 않는다. 원래 조약체결에서는 국가들사이의 자주권존중의 원칙과 평등, 호혜의 원칙이 엄격히 준수되여야 하며 체약국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여야 한다. 근대국제법인 관습국제법과 현대국제법인 조약법에 관한 헌조약에서는 다같이 국가대표자에 대한 강요로 체결된 조약은 무효이라고 규정하고있다.

침략무력을 들이밀고 위협공갈하는 속에서 조선봉건정부가 자원적의사를 내비칠수 없게 되여있다는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일제는 《한성조약》에서 《조선은 국서를 내여 일본에 사과》의 뜻을 표시하며 《일본인을 살해한 조선사람을 조사체포하여 중형에 처할것》을 규정함으로써 갑신정변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조선봉건정부에 뒤집어씌웠다. 또한 일본상인들의 《손해》를 보상하고 불탄 공사관을 다시 짓는다는 미명하에 문서에 조선봉건정부가 10여만원의 돈을 내야 한다는것을 한개 조항으로 박아넣었다. 그야말로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의 날강도적인 행위였다.

《한성조약》의 조작과정은 일제의 간교성과 악랄성, 침략적본성을 어지없이 폭로해주고있다. 그후에도 일제는 이런 방법으로 불법비법의 범죄적문서들을 련이어 날조해냈으며 끝내는 우리 나라를 저들의 식민지로 전락시켰다.

일본의 조선침략사는 아무리 선량하고 정당하여도 힘이 없으면 나라의 자주권도, 민족의 존엄도 지켜낼수 없다는 피의 교훈을 깊이 새겨주고있다.

조선민족은 일본의 파커죄악을 한시도 잊지 않고있다. 일본은 마땅히 우리 민족에게 끼친 특대형반인륜죄악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배상하여야 한다. 현시기 파커죄악을 청산하는것은 국제적흐름이다. 파커청산이야말로 일본에 있어서 새 출발을 할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나 일본반동들은 아직까지도 자기의 파커범죄를 미화분식하다 못해 그것을 전면부정하면서 뻔뻔스럽게 놀아대고있다. 미국의 대조선고립압살책동에 적극 편승하면서 제침의 칼을 벼리고있다. 일본의 파렴치한 행태는 정의와 인류량심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고 우롱이며 도전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파커죄악의 책임을 한사코 회피하며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고 어리석게 날뛰고있는 일본의 망동을 날카롭게 주시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번번한 화승대조차 없어 침략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망국노의 설음과 고통을 강요당하여야 했던 과거사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간고한 투쟁을 벌려 조선을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세계적인 핵강국, 군사강국으로 일떠세웠다.

파커청산을 똑바로 하지 않는 한 일본은 이 행성에서 편히 살기 힘들것이다.

강 철 수

로 씨 야

미국과 일본의 미싸일방위체계전개책동 비난

로씨야외무성 공식대변인 마리야 자하로바가 최근 미국과 일본의 미싸일방위체계전개책동을 비난하였다.

그는 일본당국이 미국의 지상배비형이지스미싸일방위체계《이지스 어서》를 배비하기로 결정한것은 로씨야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있다고 하면서 일본의 그러한 행위가 지역의 평화와 안정보장을 위한 노력에 배치되며 쌍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는 리유와 구실이 어떻든 《이지스 어서》의 배비는 미국의 전지구적인 미싸일방위체계내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요소를 창설하기 위한 또 하나의 조치로 된다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고 까밝혔다. 《이지스 어서》가 공격미싸일도 발사할수 있는 만능발사장치를 갖추고있는것으로 하여 이것은 미국이 일본의 《협력》으로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폐조약을 또다시 위반하고있다는것을 의미한다고 그는 단죄하였다.

미국의 내정간섭행위를 규탄

유엔주재 이란상임대표가 3일 유엔안보리사회와 유엔사무총장에게 편지를 보내여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의 내정간섭행위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최근 트럼프행정부가 당치않은 구실을 내댔며 이란내정에 대한 간섭책동에 열을 올리고있는것과 관련하여 그는 미국이 국제법의 규정과 원칙들을 란폭하게 위반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그는 미국이 지난 수십년동안 이란에서의 정상적인 정치, 사회, 문화생활과정을 파괴하려고 획책하여온데 대해 까밝히면서 미행정부의 위험한 정책과 성명들을 규탄할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하였다.

미국에서

날로 뛰여오르는 살림집가격, 집없는 사람들의 비참한 처지

미국에서 살림집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여올라 주민들의 커다란 불만을 자아내고있다.

2일 이 나라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11월까지의 1년동안에 전국적인 살림집가격이 그 전시기에 비해 7% 인상되였다.

특히 라스 베가스시는 살림집가격이 11.1%나 폭등하여 집값이 비싼 지역들가운데서 첫자리를 차지하였다고 한다.

분석가들은 올해에도 살림집가격이 계속 오를것으로 예견되고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부동산기업가들에게는 희소식으로 되겠지만 일반주민들에게는 걱정거리만 더해줄뿐이라고 평하고있다.

또한 미국에서 최근 집없는 사람들이 얼어죽는 사태가 벌어지고있다.

2일 이 나라의 휴스톤시경찰당국은 집이 없어 방랑하던 2명의 사람들이 추운 날씨로 하여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는 미국사회에서 추위에 떨며 거리를 방랑하는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따뜻한 보금자리를 기대한다는것은 한갖 공상에 불과한것이다.

【조선중앙통신】

ㄱ-810051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등록 위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집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